

2026-07-01



증권

# 증권주의 역설

: 왜 이렇게 소외되는가? 반등의 조건은?

증권. 장영임



## 증권

## 증권주의 역설: 왜 이렇게 소외되는가? 반등의 조건은?

증권. 장영임 / yijang123@sks.co.kr / 02-3773-8424

**Signal:** 역대급 거래대금에도 소외된 증권주**Key:** 거래대금 피크아웃 우려 있으나, ETF 시장이 성장세 견인**Step:** ETF가 촉발한 브로커리지 M/S 판도 변화에 주목

반도체가 만든 지수 상승,  
반도체가 가져간 수급.  
100조원대의 거래대금에도  
소외된 증권주

## ETF 성장

거래대금 확대 기여를 넘어  
브로커리지 점유율 판도도  
흔드는 중

주식시장 강세 자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

## 증권주의 역설: 높은 거래대금과 실적, 하지만 소외된 주가

유례없는 지수 상승, 일평균 거래대금 100조원 시대임에도 증권업종의 주가는 크게 부진하다. 2011년 차화정 랠리와 마찬가지로 특정 주도주로 수급이 집중되며 증시 호조와 거래대금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작 증권주는 소외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상승장에서 수급 쏠림을 제외하면 거래대금보다 증권주가 먼저 하락한 사례는 드물었다. 거래대금과 증권주의 동행관계를 고려 시, 현재 일평균 거래대금이 QoQ 증가세라는 점에서 증권주가 선행적으로 크게 하락할 국면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반도체 주도 장세에서 소외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으나, 순환매가 나타난다면 증권주에 관심을 한 번 더 가져야 할 때가 될 것이다. 결국, 거래대금의 확산 여부가 증권주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거래대금 피크아웃 우려. 증권주에 요구하는 '새로운 재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래대금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피크아웃 우려를 상쇄할 수 있는 재료는 아래와 같다.

- 1) ETF 성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ETF 거래대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거래대금만이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기존에 증권업에서 공고히 유지되던 점유율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DMA 서비스에 힘입어 한국투자증권의 ETF 점유율이 6월에 크게 상승하며, ETF를 포함한 브로커리지 점유율에서 1위인 키움증권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 (26.06 키움 14.8%, 한투 13.6%)
- 2) 하반기 정책 기대: 회전을 및 거래대금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연내 예정되어 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통합계좌의 투자 가능 대상을 국내 ETF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 투자의견 OVERWEIGHT 유지.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최선호

투자전략으로는 브로커리지 부문을 기초체력으로 가져가면서 유례없는 주식시장 강세의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추천한다. 최선호주로 한국금융지주와 삼성증권을 유지한다. 두 종목 모두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높고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갖추었다. 이에 더해, 한국금융지주는 주식시장 강세로 자회사의 유가증권 평가이익 기여도 기대 가능하다.

## CONTENT

01	Summary	3
02	증권주, 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가?	9
	(1) 연초에 강했던 주가. 피크아웃 우려에 계속해서 부진	9
	(2) 증권주의 역설: 거래대금, 지수도 좋은데 왜 증권주는 하락하는가?	11
03	피크아웃 우려 존재. 하지만 ETF가 받쳐준다	16
	(1) 거래대금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레벨은 견조	16
	(2) ETF 가파른 성장세 지속. 2분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도 한 몫	19
	(3) ETF 거래대금 확대되며 점유율 판도 변화. DMA가 무엇이길래?	22
	(4) 우려되는 점은 수급 쓸림으로 거래량은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것	26
	(5) 결국은 거래대금의 확산, 브로커리지 점유율 방어 or 증가가 중요	26
04	브로커리지는 기본. 차별화 포인트는?	30
05	투자전략 및 결론	37
06	기업분석	41
	한국금융지주(071050)	41

## COMPLIANCE NOTICE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단계(6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6년 07월 01일 기준)	매수	93.55%	중립	6.45%	매도	0.00%
---------------------------------------	----	--------	----	-------	----	-------

## 1. Summary

**상반기 증권업종은  
KOSPI 지수 대비  
56.5%p 언더퍼폼**

현재 일평균 거래대금 100 조원대, ETF 까지 포함 시 140 조원대를 기록하며 유례없는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KRX 증권지수는 올해 YTD 42.7% 상승하며 KOSPI 지수 대비 56.5%p 언더퍼폼하였다. 실적 호조에도 증권주가 크게 소외된 배경은 반도체 중심의 수급 쏠림과 거래대금 피크아웃 우려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증권주의 역설  
: 지수, 거래대금 좋으나, 주도주  
수급 쏠림으로 증권주 소외  
= 2011년, 현재**

거래대금, KOSPI 지수, 증권주가 동행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서로 꺾일 때 동반 하락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011년과 현재와 같이 거래대금과 KOSPI 지수가 견조한데 증권주가 먼저 하락하였던 때는 특정 주도주로의 수급 쏠림이 나타났던 시기였다. 즉, 2011년 차화정 랠리와 현재의 반도체 주도 장세가 '증권주의 역설'을 잘 보여주는 시기라고 판단한다. 지수 상승과 거래대금 증가는 증권업 실적에는 우호적이지만, 특정 주도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정작 증권주는 소외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거래대금 피크아웃 우려 존재  
but ETF 시장 성장이  
거래대금 성장세 견인 중**

물론, 시장에서 우려하듯이 일평균 거래대금의 QoQ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1분기 QoQ 증가율이 80.6%(ETF 포함 시 86.3%)로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증가율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100 조원을 훌쩍 상회하며 높은 수준이기에 증권업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ETF 일평균 거래대금이 급증하며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ETF 시장 성장으로  
브로커리지 점유율 판도 변화  
- 키움과 한투의 점유율 격차는  
근소한 수준**

특히, 눈에 띄는 점은 ETF 거래대금이 확대되면서 브로커리지 점유율의 판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26년 6월 기준 브로커리지(KRX+NXT+ETF) 점유율에 있어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점유율 격차가 1.2%p로 좁혀졌다. 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후 DMA 서비스 중심으로 한국투자증권의 ETF 점유율이 급등한 영향이다.

**결국 거래대금 확산 및  
회전을 제고가 중요  
관련 정책에 주목할 필요**

결국 증권주의 반등 여부는 거래대금의 절대 수준뿐 아니라 거래대금의 확산 및 회전을 제고 여부가 좌우할 것으로 판단한다. 회전을 및 거래대금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연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통합계좌의 투자 가능 대상을 국내 ETF 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코스닥 승강제 도입, 동전주 퇴출 등 코스닥 시장의 체질개선 정책도 예정되어 있다. 이는 현재 코스피 대형주에 집중된 거래대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일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회전을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정책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 증권주 수익률은  
업황 및 실적 대비  
과도하게 부진  
순환매 시 증권주에 주목**

또한, 2000 년 이후로 상승장에서 수급 쏠림을 제외하고는 거래대금보다 증권주가 먼저 하락한 선례는 드물다. 거래대금과 증권주가 동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5~6 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100 조원대, ETF 까지 포함 시 137 조원에서 140 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증권주가 선행적으로 크게 하락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증권주가 2 분기에 KOSPI 지수 대비 76.9%p 언더퍼폼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반도체 주도 장세에서 소외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으나, 순환매가 나타난다면 증권주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 강세 수혜  
극대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보유한 종목 위주 접근 추천**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견조하고 회전을도 제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따라서, 투자전략으로는 브로커리지 부문은 기초체력으로 가져가면서 유례없는 주식시장 강세로부터 최대한의 수혜가 기대되는 포트폴리오(WM, 운용 등)를 보유한 종목 위주로 접근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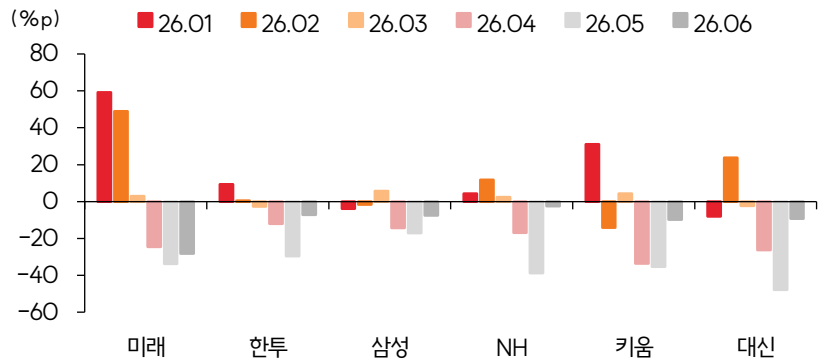
**Top Picks  
: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최선호주로 **한국금융지주**와 **삼성증권**을 제시한다.

- 한국금융지주는 최근 ETF 점유율 확대를 통해 브로커리지 부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주식시장 강세에 따라 ELS 조기상환 및 운용 자회사에서의 유가증권 평가이익도 기대 가능하다. 또한, 주식시장과 별개로도 발행어음 및 IMA 북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 기여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2026F ROE 21.8% 전망하며, P/B 는 0.86 배에 불과하여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다.
- 삼성증권은 리테일 경쟁력을 바탕으로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2026F ROE 19.9%로 예상하며, 12MF P/B 는 1.0 배로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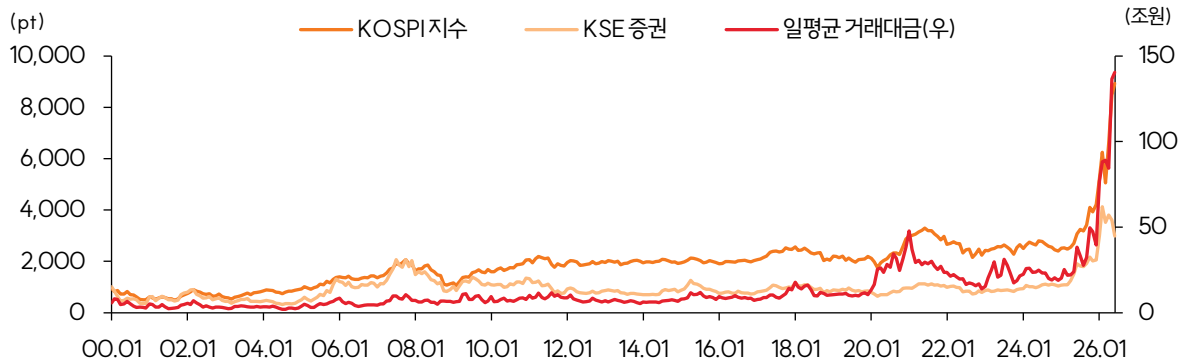
## Key Charts

유니버스 증권 KOSPI 지수 대비 성과



자료: Quantiwise,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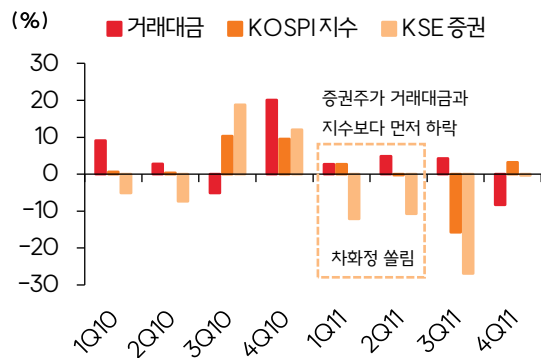
일평균 거래대금, KOSPI 지수, 증권주 추이 - 동행 관계



자료: Quantiwise,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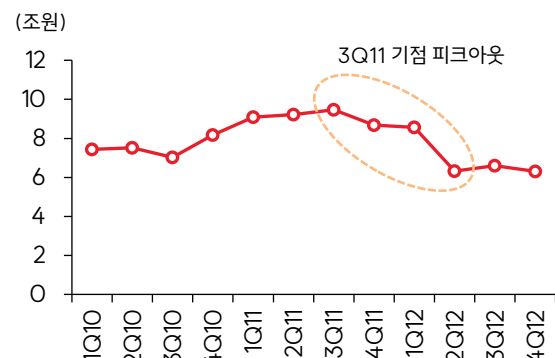
주: 일평균 거래대금은 KRX, NXT, ETF 까지 포함

2010~2011년 거래대금, 증권주 QoQ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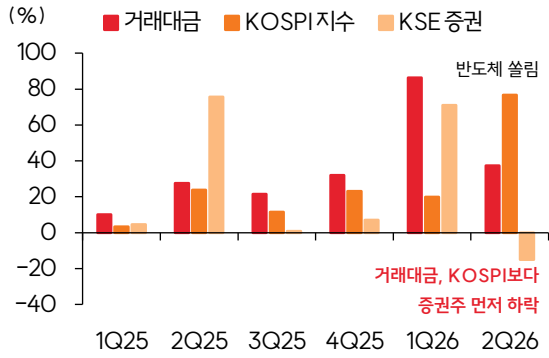
자료: SK 증권

2010~2012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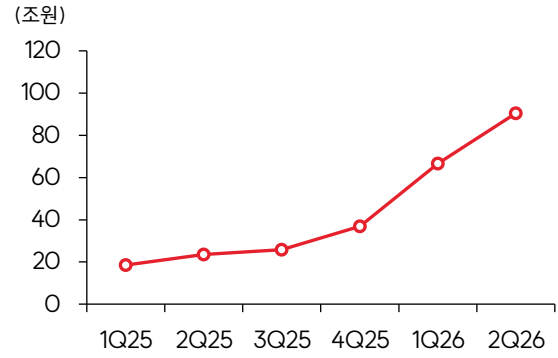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2025~2026년 거래대금, 증권주 QoQ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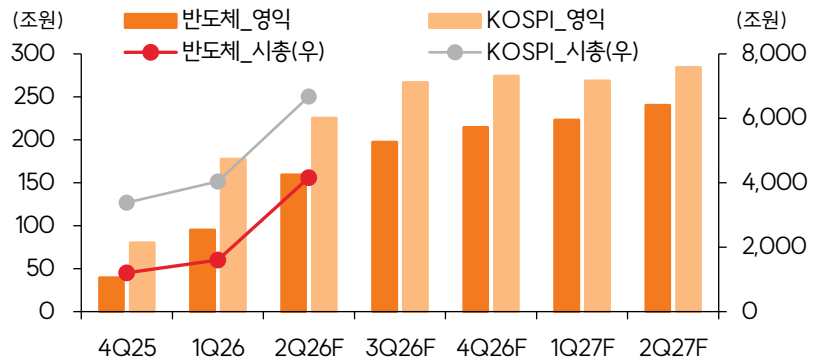
자료: SK 증권

2025~2026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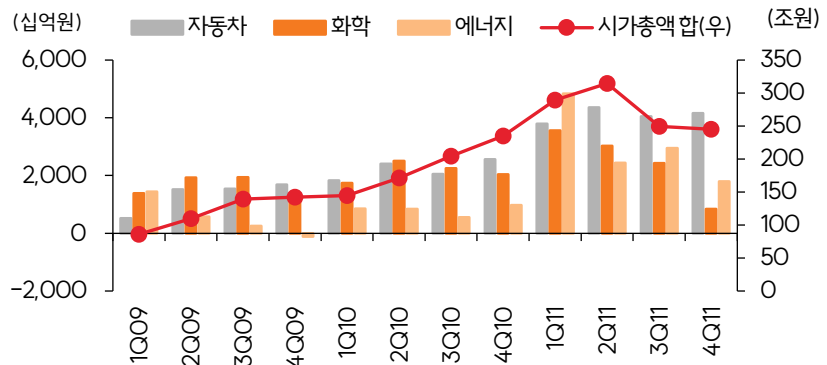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KOSPI, 반도체 영업이익 컨센서스 및 시가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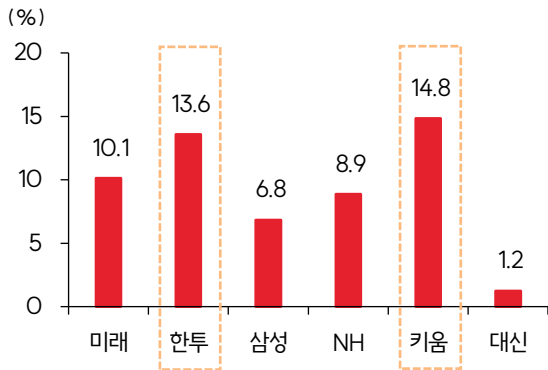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2009~2011년 차화정 랠리 당시 각 섹터 영업이익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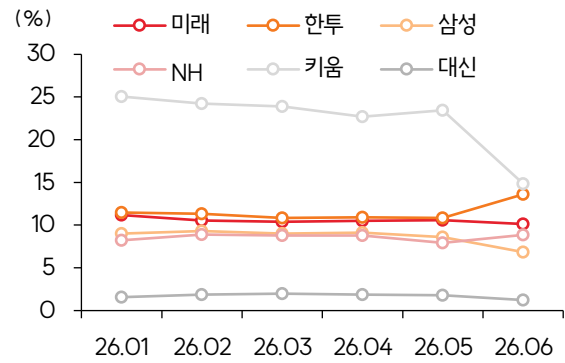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KRX+NXT+ETF 점유율(2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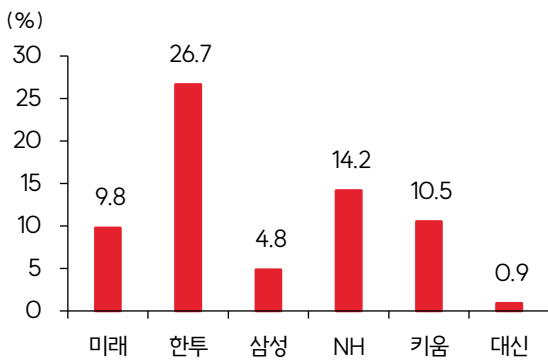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KRX+NXT+ETF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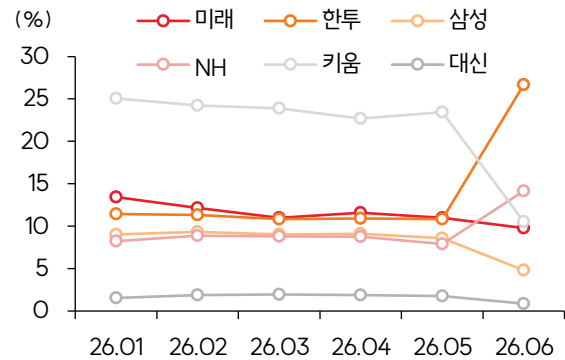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ETF 거래대금 점유율(2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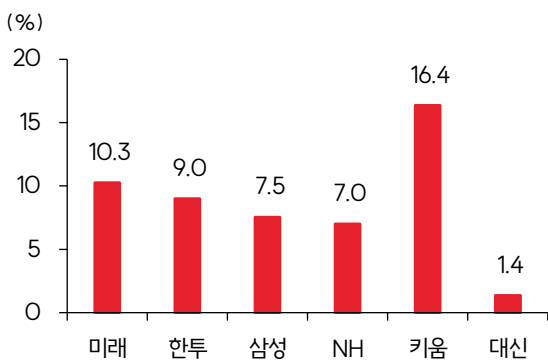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ETF 거래대금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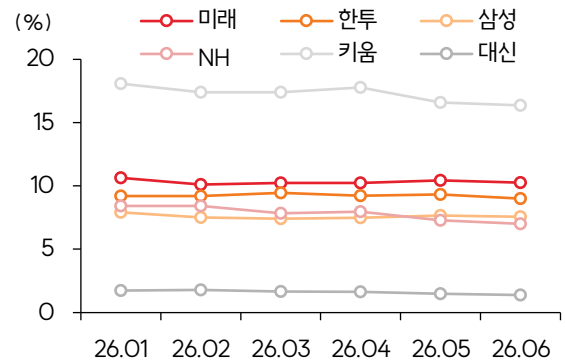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KRX+NXT 점유율 (26.06)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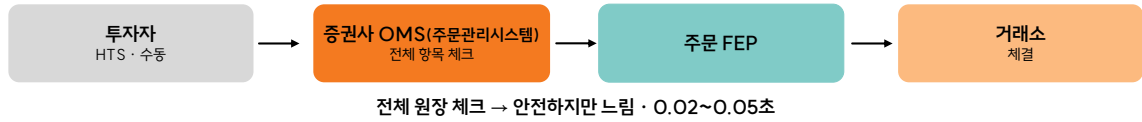
유니버스 증권 KRX+NXT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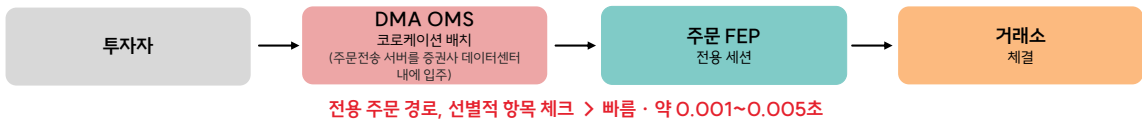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DMA 란?

일반주문



DMA 주문



원장 체크

- 일반: 전체 항목 체크
- DMA: 선별적, 필수 항목 중심 체크

빠른 속도 (기술)

- 코로케이션 + 시세 직접 수신
- 전용 주문 세션 + 원장 우회

시장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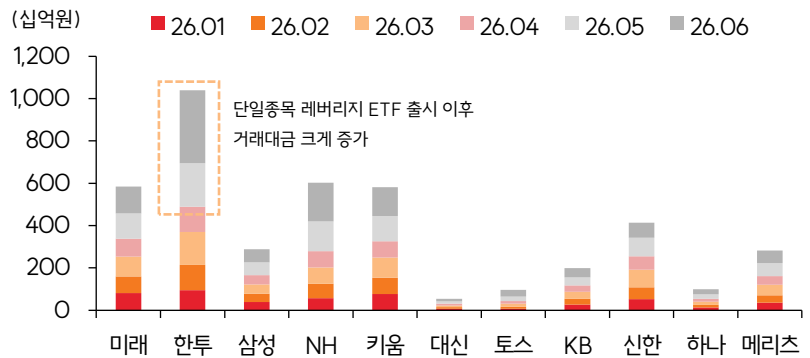
- HFT의 거래대금 내 비중 약 58% (26년 2월 기준)
- 주로 외국인 · 기관이 활용

쟁점 · 리스크

- 개인 대비 최대 50배 속도 차
- 원장 우회 구간 = 사전통제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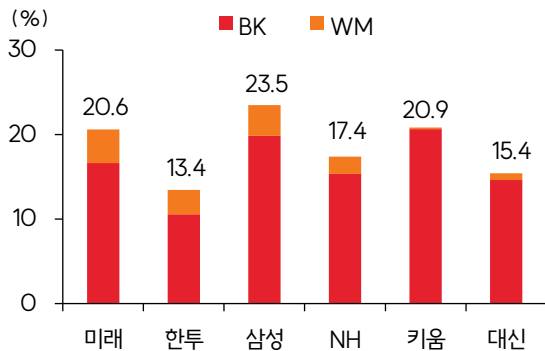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감독원, SK 증권

주요 증권사 ETF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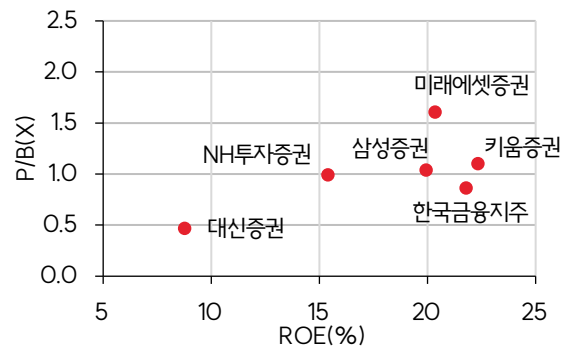
자료: CheckExpert+, SK 증권

2026F BK+WM 수수료수익 ROE 기여도 추정



자료: 각 사,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2026F ROE - P/B Matrix



자료: Quantwise, SK 증권

## 2. 증권주, 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가?

거래대금 급증으로 연초 강세  
다만, 4월 이후 계속해서  
KOSPI 지수 대비 언더퍼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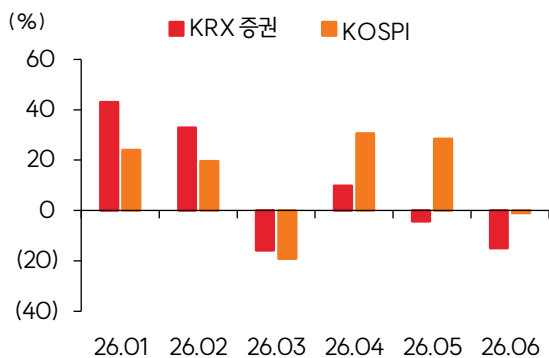
### (1) 연초에 강했던 주가. 피크아웃 우려에 계속해서 부진

KRX 증권지수는 연초만 해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며 KOSPI 대비 아웃퍼폼하였으나, 이러한 주가 상승세는 2 달에 불과하였고 4월 이후부터는 계속하여 KOSPI 지수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5~6월에 KOSPI 지수가 계속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에도 증권주의 부진은 더욱 두드러졌다. 4~6월 KRX 증권지수는 KOSPI 지수 대비 각각 -20.8%p, -32.8%p, -14.0%p 언더퍼폼하였다.

증권주가 1~2월에 KOSPI 대비 크게 아웃퍼폼하였던 포인트들이 현 시점에서 다소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연초 증권주 강세의 배경은 1) KOSPI 지수의 신고가 경신과 더불어 2) 일평균 거래대금이 60조원대로 전분기 대비 80%가량 증가함에 따라 증권주 투자심리 개선 및 실적에 대한 기대감, 3)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 X 투자자산 평가이익이 주목을 받은 영향이다. 하지만, 하반기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거래대금의 절대적인 레벨은 높으나 QoQ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스페이스 X가 6월 상장함에 따라 관련 투자자산 평가이익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던 미래에셋증권의 주가가 2월 초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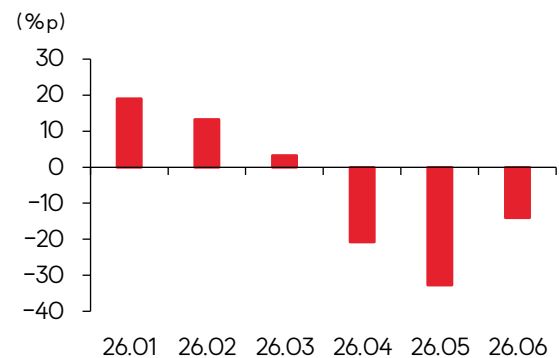
결국, 증권주의 부진은 1) 피크아웃 우려로 투자심리가 약화되었고, 2) 반도체주 중심의 주가 상승으로 소외된 상황이며, 3) 그 외에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만한 재료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KRX 증권 2026년 월별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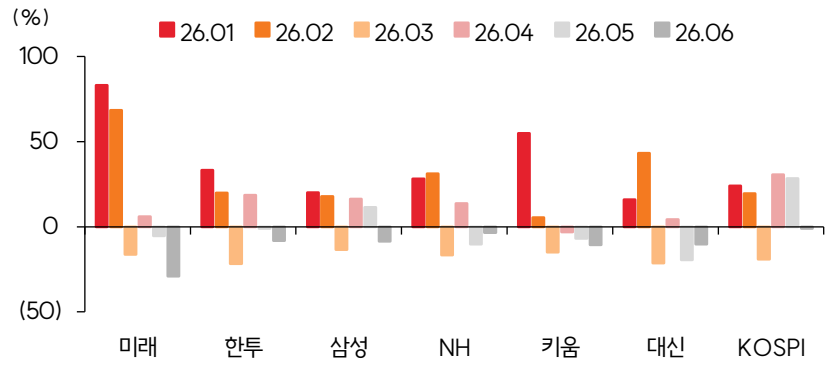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KRX 증권지수 KOSPI 대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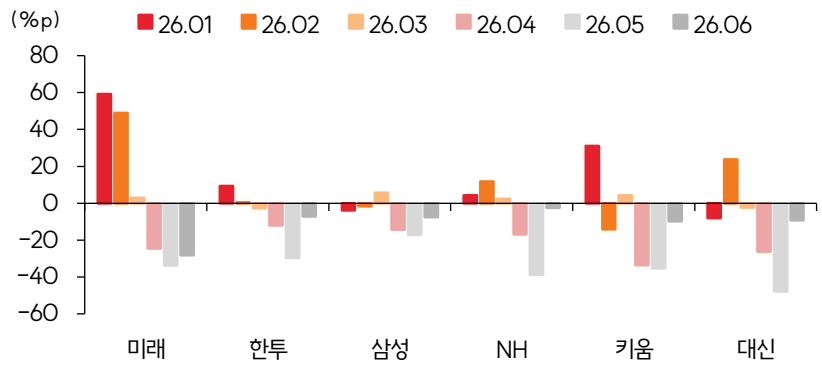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월별 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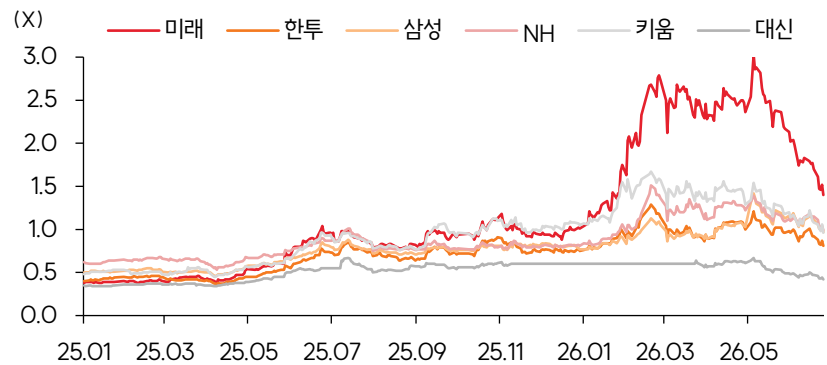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KOSPI 지수 대비 성과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12MF P/B 추이



자료: Quantiwise,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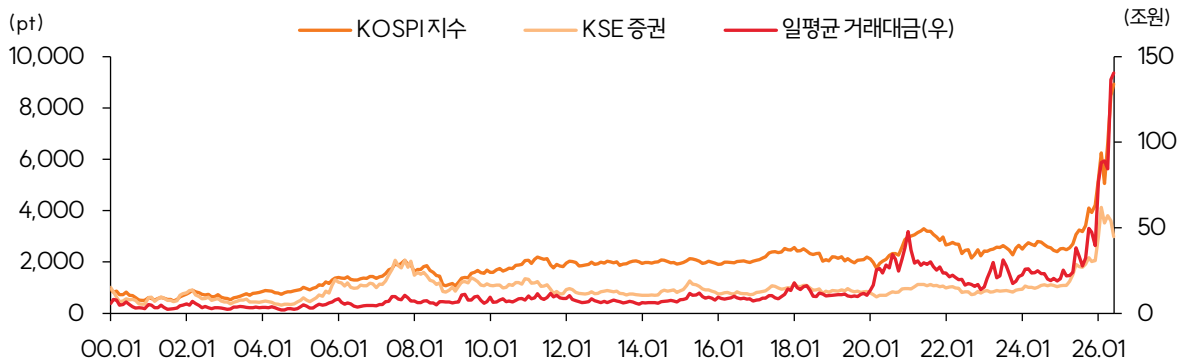
(2) 증권주의 역설: 거래대금, 지수도 좋은데 왜 증권주는 하락하는가?

일평균 거래대금, KOSPI 지수, 증권주는 동행하는 경향

유례없는 증시 호황, 100 조원대의 거래대금에도 불구하고 증권주가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그 이유로 '피크아웃 우려'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1) 2000년 이후 시계열 분석을 통해 증권주와 일평균 거래대금, KOSPI 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2) 과거에도 피크아웃 우려로 증권주가 거래대금과 KOSPI 지수보다도 먼저 하락 전환하였던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과거 데이터와 추세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 증권주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계열을 분석한 결과, KOSPI 지수와 일평균 거래대금, KSE 증권지수는 모두 동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물론, 이는 전반적인 방향성이며, 국면별로 나누어서 보면 그 관계성이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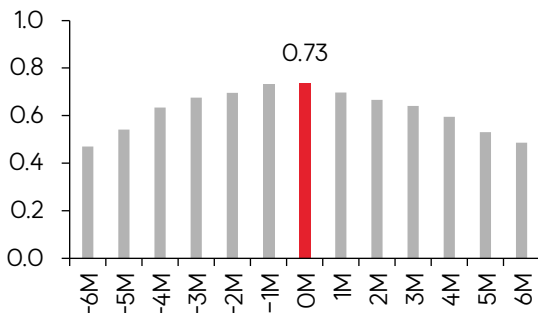
일평균 거래대금, KOSPI 지수, 증권주 추이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주: 일평균 거래대금은 KRX, NXT, ETF 까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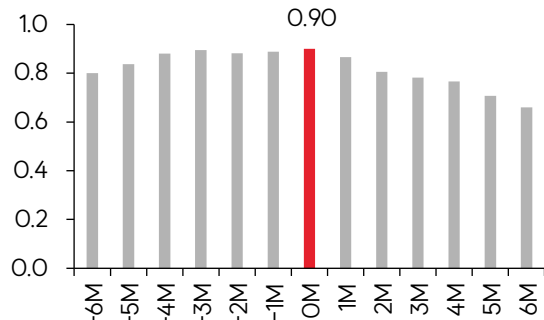
KSE 증권지수와 일평균 거래대금은 동행하는 경향



자료: SK 증권

주: -1M은 KSE 증권지수가 일평균 거래대금을 1개월 선행함을 의미  
시계열은 2000~2026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KRX, NXT, ETF 까지 포함

일평균 거래대금과 KOSPI 지수는 동행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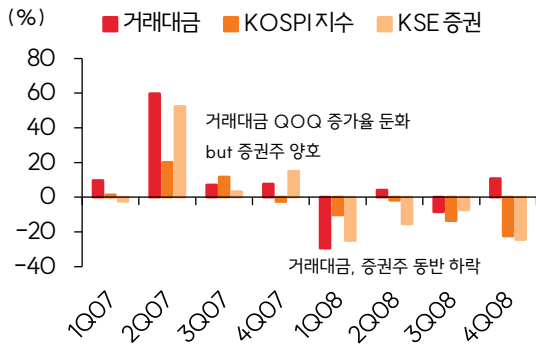
자료: SK 증권

주: -1M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KOSPI 지수를 1개월 선행함을 의미  
시계열은 2000~2026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KRX, NXT, ETF 까지 포함

KOSPI 지수가 상승세를 보인 후 하락하였던 2007~2008년, 2010년~2011년, 2017~2018년, 2020년~2021년, 그리고 현재 국면을 각각 쪼개어 봤을 때 세 가지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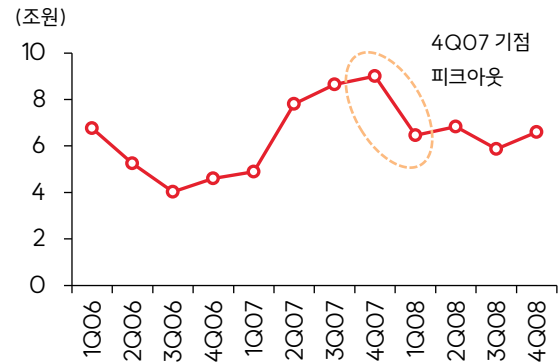
- 1) 거래대금, KOSPI 지수, 증권주가 동반 하락을 시작한 국면= 2008년, 2018년
- 2) 거래대금 둔화가 확인된 이후 증권주 주가가 조정을 받은 국면= 2021년
- 3) 거래대금, KOSPI 지수는 견조한데 증권주가 먼저 하락한 국면= 2011년, 현재

2007~2008년 거래대금, 증권주 QoQ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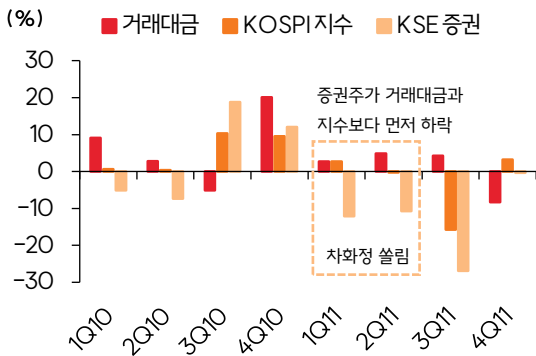
자료: SK 증권

2006~2008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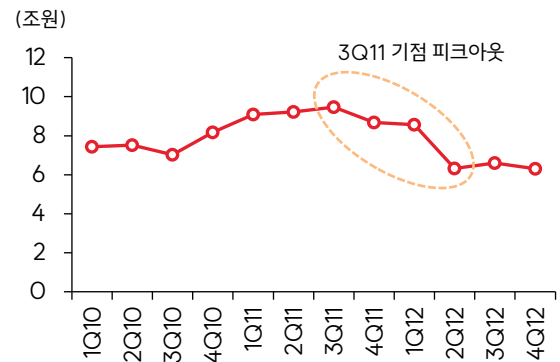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2010~2011년 거래대금, 증권주 QoQ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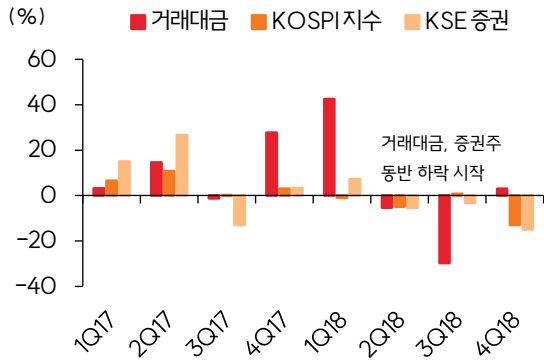
자료: SK 증권

2010~2012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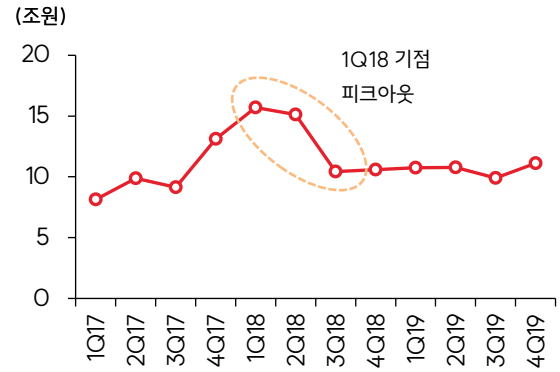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2017~2018년 거래대금, 증권주 QoQ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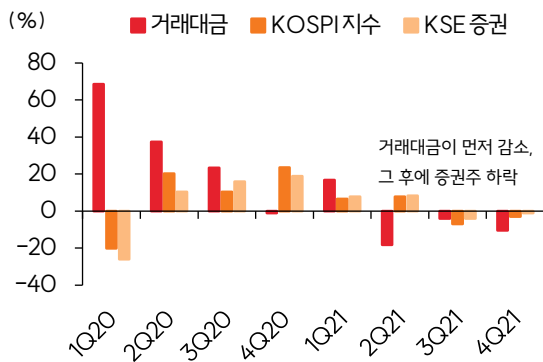
자료: SK 증권

2017~2019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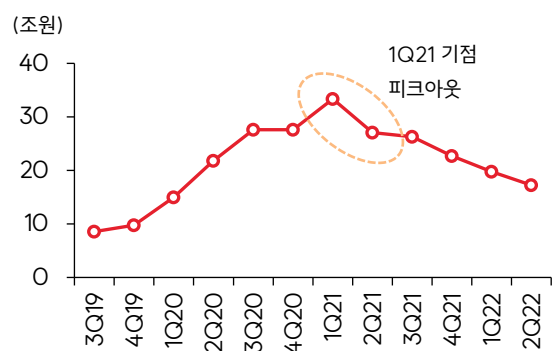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2020~2021년 거래대금, 증권주 QoQ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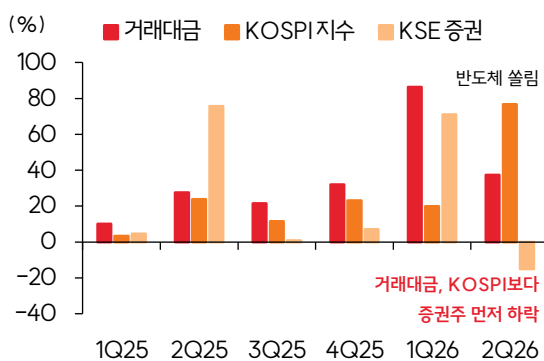
자료: SK 증권

2020~2021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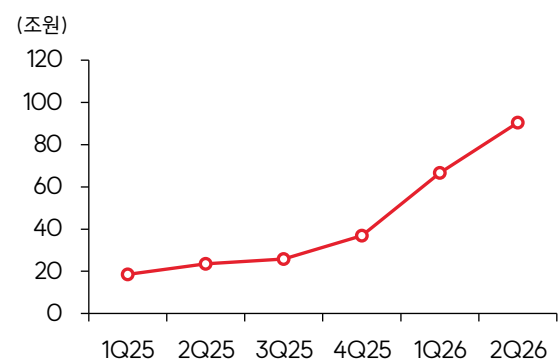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2025~2026년 거래대금, 증권주 QoQ 변화율



자료: SK 증권

2025~2026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증권주의 역설**

**: 지수, 거래대금 좋으나, 주도주  
수급 쏠림으로 증권주 소외  
= 2011년, 현재**

거래대금, KOSPI 지수, 증권주가 동행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서로 꺾일 때 동반 하락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011년과 현재와 같이 거래대금과 KOSPI 지수가 견조한데 증권주가 먼저 하락하였던 때는 특정 주도주로의 수급 쏠림이 나타났던 시기였다. 즉, 2011년 차화정 랠리와 현재의 반도체 주도 장세가 '**증권주의 역설**'을 잘 보여주는 시기라고 판단한다. 지수 상승과 거래대금 증가는 증권업 실적에는 우호적이지만, 특정 주도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정작 증권주는 소외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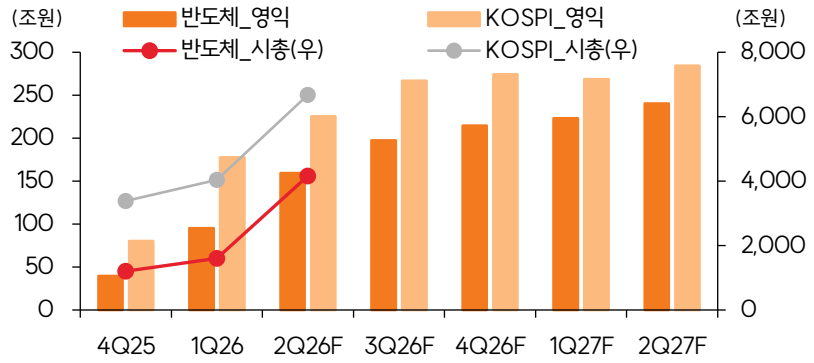
2011년과 현재는 주도주 쏠림 현상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2011년 하반기 차화정 랠리의 끝과 현재는 다르다. 2011년 하반기에는 차화정의 업황 둔화 신호가 나타난 가운데,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에 하반기에 차화정 주가 급락 뿐 아니라, KOSPI 지수 하락, 거래대금도 피크아웃, 그에 따라 증권주 역시 하락하였다.

하지만, 현재 반도체로 수급이 집중되어 있어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기는 하나, 주도주인 반도체 업황이 견조하고 한국의 수출 실적도 좋으며, 무엇보다 거래대금 역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주가 2 분기에 KOSPI 지수 대비 -76.9%p 언더퍼폼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수급 쏠림을 제외하면,  
거래대금이 꺾일 때 증권주 하락  
아직은 시그널 제한적  
순환매 시 증권주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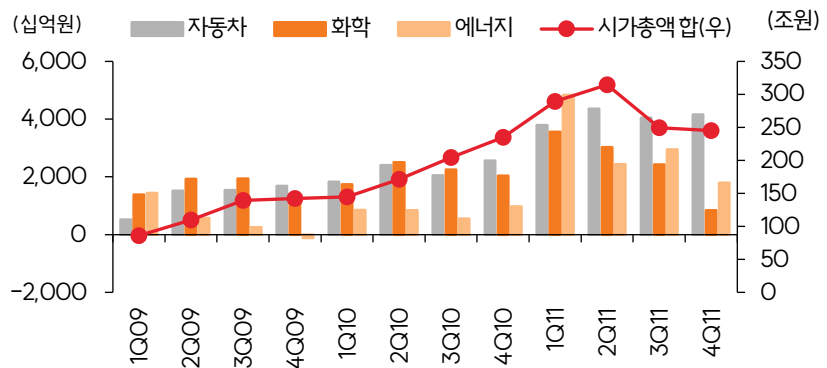
물론, 거래대금의 QoQ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앞서 보였듯이, 2000년 이후로 상승장에서 수급 쏠림을 제외하고는 거래대금보다 증권주가 먼저 하락한 선례는 없었다. 거래대금과 증권주가 동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5~6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100조원대, ETF까지 포함 시 137조원에서 140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증권주가 선행적으로 크게 하락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반도체 주도 장세에서 소외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으나, 순환매가 나타난다면 증권주에 관심을 한 번 더 가져야 할 때가 될 것이다.

KOSPI, 반도체 영업이익 컨센서스 및 시가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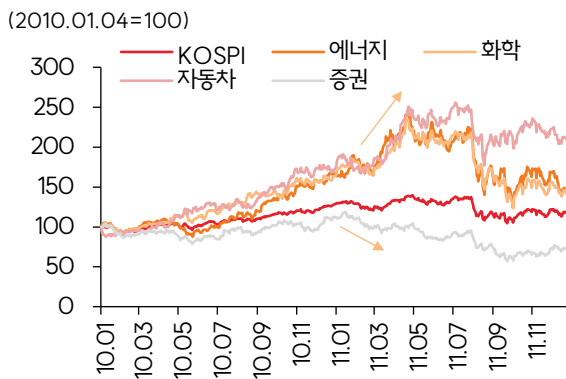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2009~2011년 차화정 랠리 당시 각 섹터 영업이익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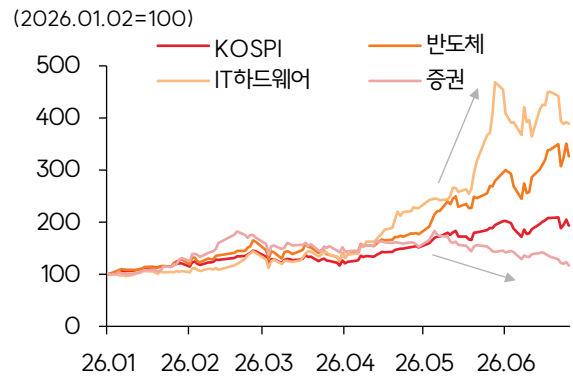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2010~2011년 차화정, 증권 주가 추이



자료: Quantiwise, SK 증권

2026년 IT, 증권 주가 추이



자료: Quantiwise, SK 증권

### 3. 피크아웃 우려 존재. 하지만 ETF 가 받쳐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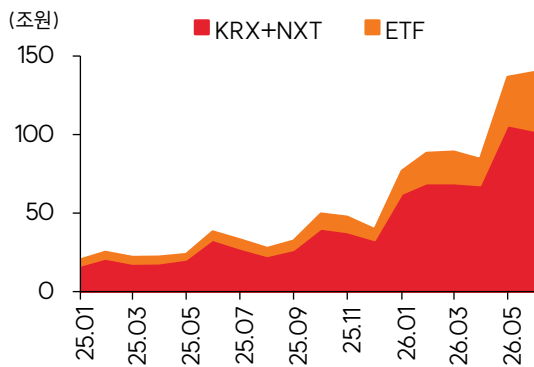
**거래대금 증가율 둔화  
1분기 QoQ 성장률 이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

#### (1) 거래대금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레벨은 견조

시장에서 우려하듯이, 일평균 거래대금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사실이다. 1분기에 일평균 거래대금의 QoQ 증가율이 80.6%(ETF 포함 시 86.3%)에 달하며 매우 높은 수준이었는데, 앞으로 80% 이상의 성장률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 2 분기 QoQ 증가율은 35.9%(ETF 포함 시 39.3%)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2 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117.6 조원으로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100 조원을 훌쩍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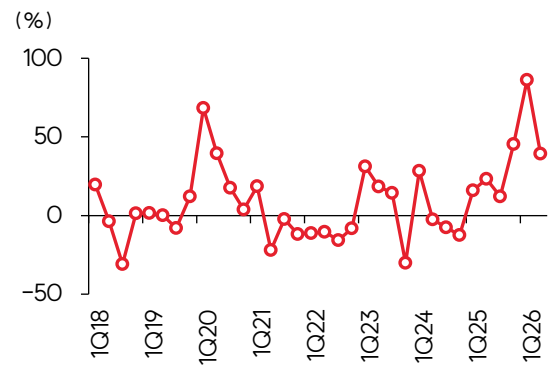
당사는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85.5 조원으로 전년 대비 169.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QoQ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나, 2 분기 90.5 조원에 이어 3 분기 91.0 조원, 4 분기 95.7 조원일 것으로 추정한다. 거래대금의 절대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증권업의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 부문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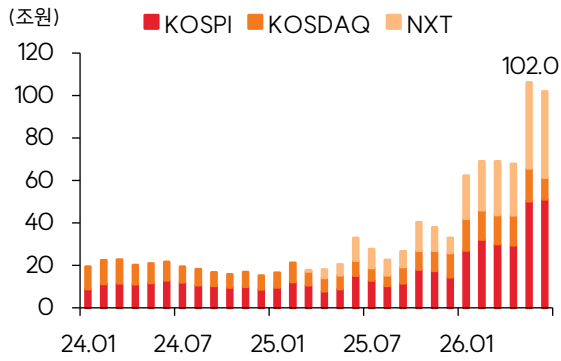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KRX, SK 증권  
주: KRX+NXT+ETF 포함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 QoQ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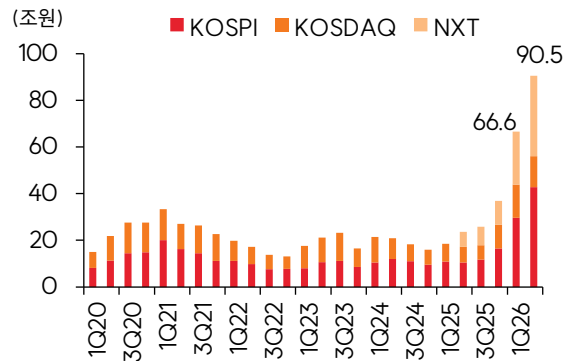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주: KRX+NXT+ETF 포함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KRX+NXT)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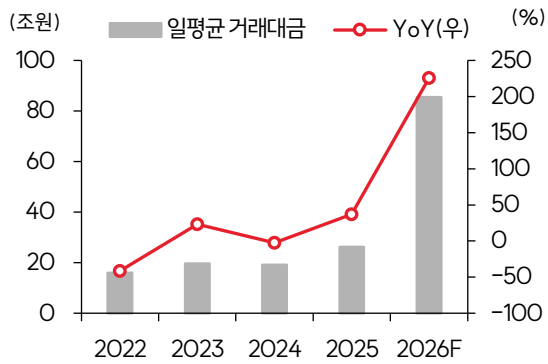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일평균 거래대금(KRX+NXT) 분기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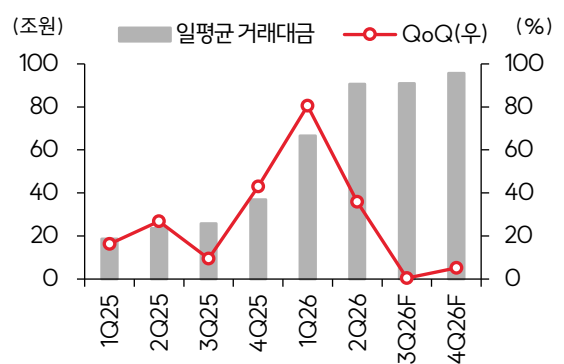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및 전망



자료: SK 증권

일평균 거래대금 QoQ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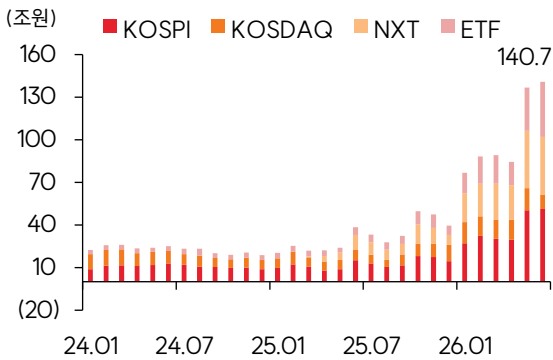


자료: SK 증권

**KRX+NXT 거래대금에  
ETF 거래대금까지 합쳐서 보면  
증가세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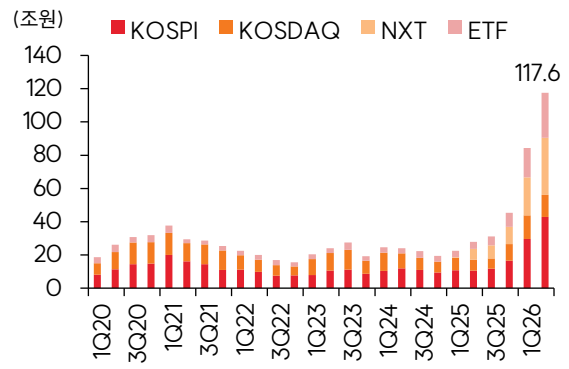
특히, 주목할 점은 ETF의 성장이다. 올 초에도 ETF의 가파른 성장이 돋보였는데,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성장세가 더욱 가파르다. ETF 거래대금이 빠르게 확대되며, KRX+NXT 거래대금 증가세 둔화를 상쇄하고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실제로, 일평균 거래대금(KRX+NXT)이 5월 106.2조원, 6월 102.0조원 기록하며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ETF까지 고려시 5월 136.6조원, 6월 140.7조원 수준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됨에 따라 6월 일평균 거래대금(KRX+NXT)은 MoM -3.9% 하락하였으나, ETF는 MoM +27.0% 증가하며 거래대금 증가세에 기여하고 있다.

일평균 거래대금(KRX+NXT+ETF)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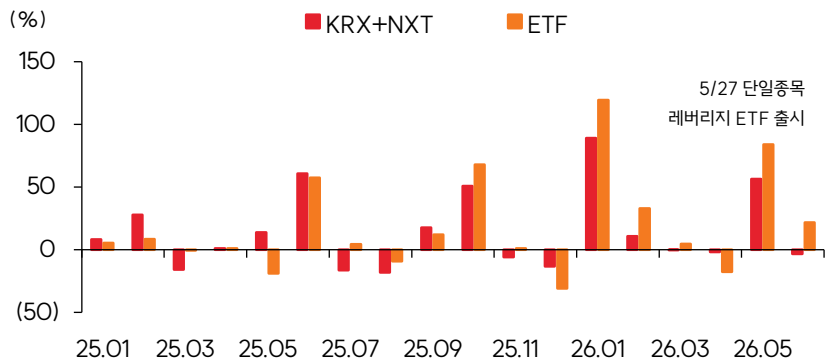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KRX, SK 증권

일평균 거래대금(KRX+NXT+ETF) 분기별 추이



자료: Quantiwise, KRX, SK 증권

일평균 거래대금 MoM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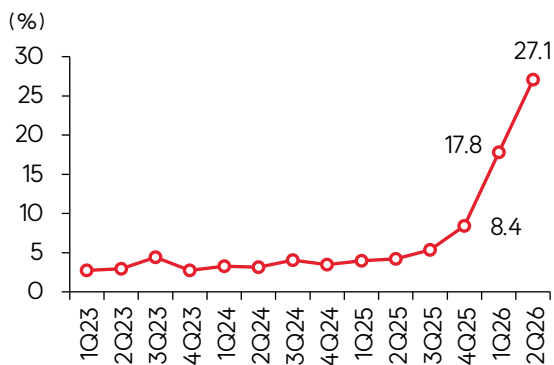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2) ETF 가파른 성장세 지속. 2분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도 한 몫

ETF 거래대금이 상반기에만  
작년의 두배 수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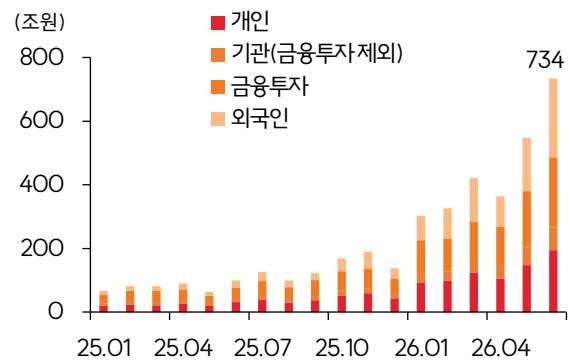
ETF가 연초에 이어 계속해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누적 ETF 거래대금은 2,694 조원으로 전년도 누적 거래대금 1,328 조원 대비 102.7% 증가하였다. 상반기만에 작년 거래대금의 두배를 기록한 것이다. ETF 일평균 거래대금 또한 연간 22.8 조원으로 전년(5.5 조원)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분기별로 보면 작년 4분기 8.4 조원에 이어 올해 1분기 17.8 조원, 2분기 27.1 조원을 기록하였다.

ETF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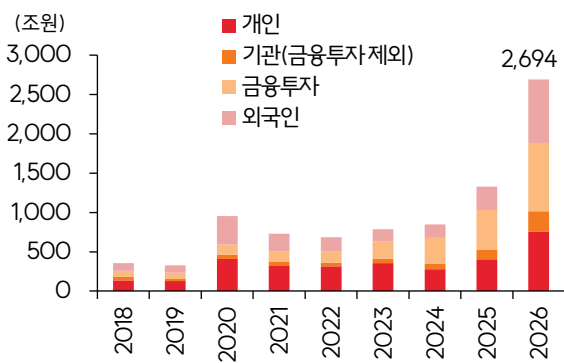
자료: KRX, SK 증권

ETF 누적 거래대금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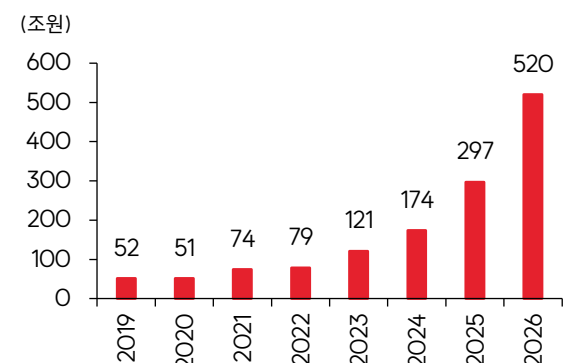
자료: KRX, SK 증권  
주: (매수+매도)/2

ETF 누적 거래대금 연도별 추이



자료: KRX, SK 증권  
주: (매수+매도)/2

ETF 순자산총액 추이



자료: KRX, SK 증권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ETF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에 크게 기여

특히, 2분기 ETF 일평균 거래대금이 전분기 대비 52.3% 증가한 27.1 조원을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로 보인다. ETF 일평균 거래대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당일인 5월 27일에 45.4 조원을 기록하며 전고점인 44.4조원(지정학적 리스크 발생한 직후에 거래대금이 폭증했던 3월 4일)을 돌파하였다. 출시 이후 전체 ETF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평균 38.9 조원을 기록하며 연초~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전 일평균 거래대금의 평균 19.1 조원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대금은 6월 현재 전체 ETF 거래대금 내에서 3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기여도가 올라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개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분류해서 살펴보면, 5월 9.3조원, 6월 현재 11.3조원이 거래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회전율도 6월 평균 131%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로 ETF 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되며 증권업의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과 ETF LP 관련 운용손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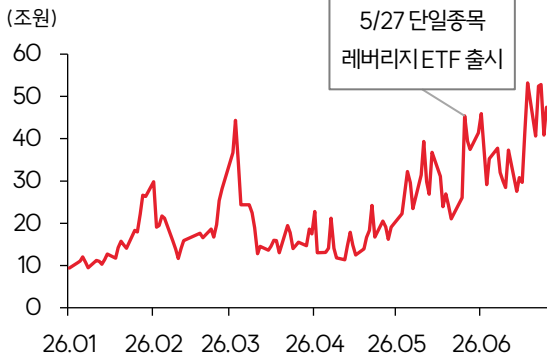
### (+) 이벤트 외국인 통합계좌 투자 대상을 개별주식에서 ETF, ETN으로 확대 추진

다만, 현 시점에서 ETF 거래대금 관련 주목할만한 이벤트와 리스크가 공존한다. 주목할만한 이벤트는 외국인 통합계좌에서 ETF 투자가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ETF, ETN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현재 외국인 통합계좌에서는 개별 주식만을 거래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에 따르면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은 약 5.8조원, 순매수 규모는 약 2.2조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이처럼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ETF 거래까지 허용된다면 ETF 거래대금이 한층 더 확대될 수 있겠다.

### (-) 리스크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규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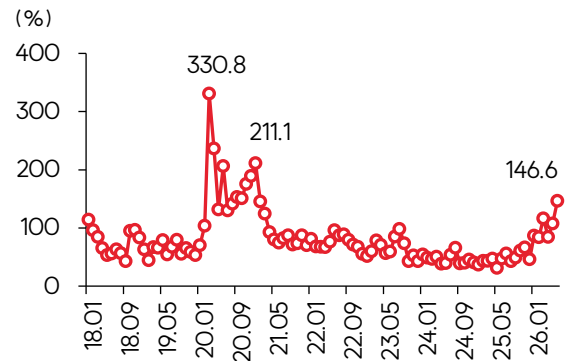
리스크는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회전율이 높아 시장 변동성을 크게 촉발한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두 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기본예탁금 1,000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규제 강화로는 투자자 교육 강화, 기본예탁금 상향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진입 요건 강화로 현 수준보다 회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리스크이다.

ETF 일평균 거래대금 일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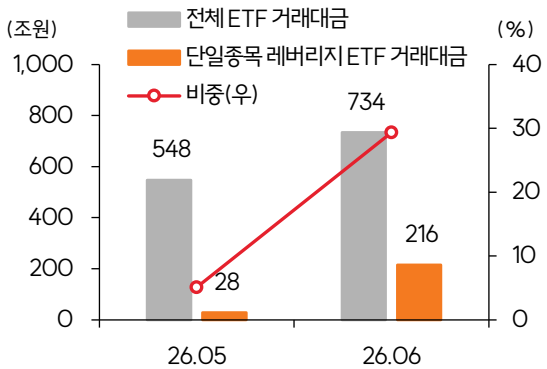
자료: KRX, SK 증권

ETF 회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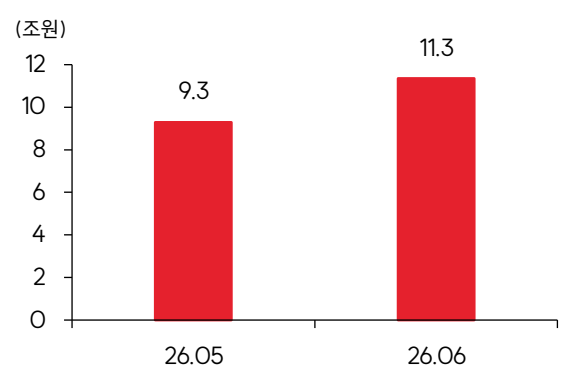
자료: KRX, SK 증권  
주: 단순 월 회전율, 연환산 x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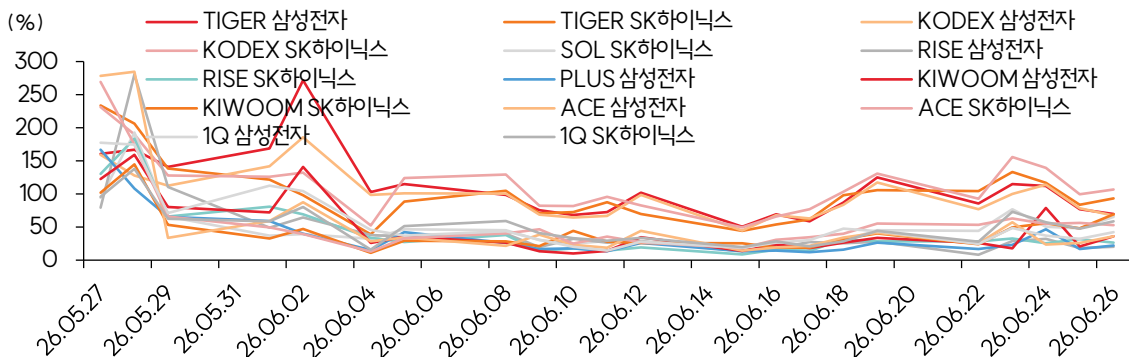
자료: KRX, SK 증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자료: KRX, SK 증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회전율 추이



자료: KRX, SK 증권  
주 1: 인버스 2X 는 제외,  
주 2: 단순 월 회전율, 연환산 x

잘 알려졌듯이,  
KRX+NXT 기준  
브로커리지 M/S1등은 키움

ETF 점유율까지 고려 시,  
키움과 한투의 점유율 격차는  
근소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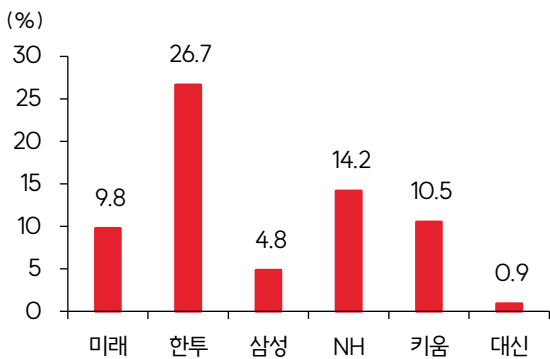
### (3) ETF 거래대금 확대되며 점유율 판도 변화. DMA 가 무엇이길래?

ETF 거래대금이 확대됨에 따라, 증권업의 브로커리지 점유율을 고려할 때 ETF 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에는 KRX 와 NXT 를 합쳐 점유율을 비교하였는데, 그리하면 국내 브로커리지 점유율 1위는 키움증권이다. CheckExpert 기준으로 26년 6월 KRX와 NXT 점유율은 키움 16.4%, 미래 10.3%, 한투 9.0%, 삼성 7.5%, NH 7.0%, 대신 1.4%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ETF 까지 고려하게 되면 점유율에 판도가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6년 6월 기준 한국투자증권의 ETF 점유율이 급등함에 따라, 브로커리지 (KRX+NXT+ETF) 점유율에서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점유율 격차가 1.2%p로 좁혀졌다. 이로써 ETF 까지 고려한 전체 브로커리지 점유율은 26년 6월 기준 키움 14.8%, 한투 13.6%, 미래 10.1%, NH 8.9%, 삼성 6.8%, 대신 1.2%로 순서가 뒤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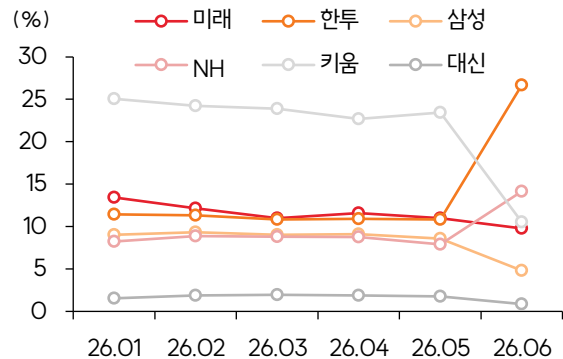
26년 6월 한국투자증권의 ETF 거래대금 점유율이 보통 10~11% 수준이었던 것에서 26.7%로 급등한 이유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효과가 작용하였고, 그 배경에는 DMA가 있다.

유니버스 증권 ETF 거래대금 점유율(2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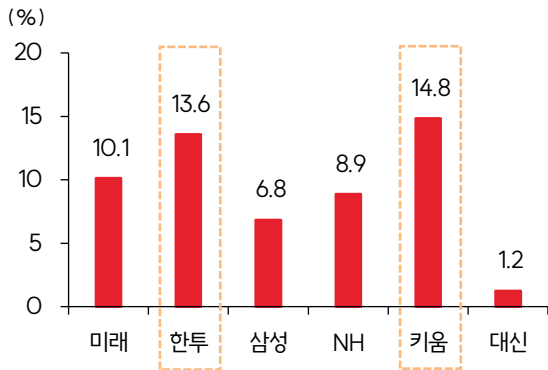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ETF 거래대금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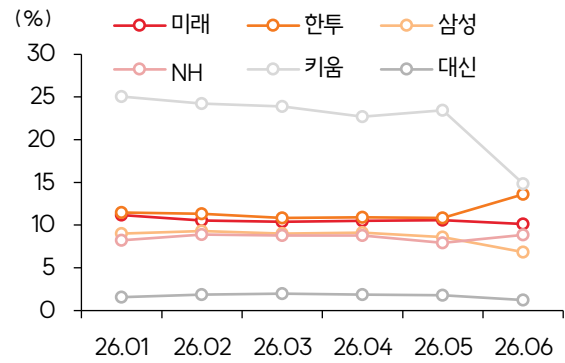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KRX+NXT+ETF 점유율(2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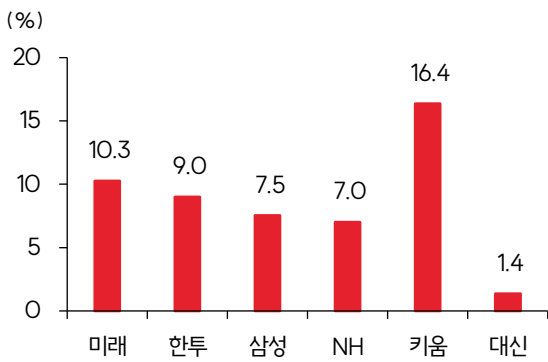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KRX+NXT+ETF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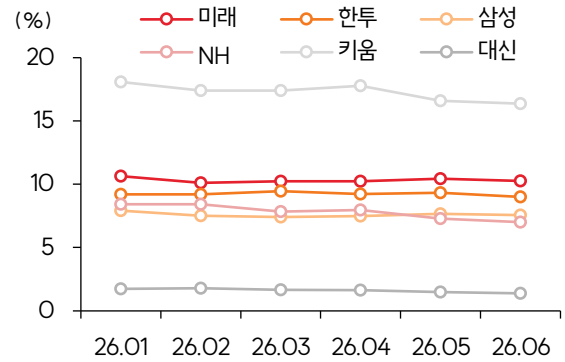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KRX+NXT 점유율 (26.06)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KRX+NXT 점유율 추이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한투의 ETF 점유율 상승 배경**  
**: DMA 서비스를 통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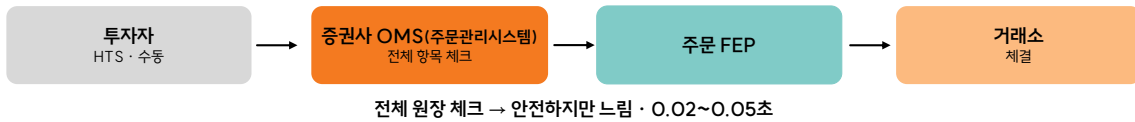
최근 한국투자증권의 ETF 점유율이 상승한 배경으로 DMA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DMA(Direct Market Access, 직접전용주문)란, 증권사의 주문 대행 없이 투자자가 직접 주문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여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른다. DMA는 투자자 주문 서버를 증권사 데이터센터 내에 설치하여 주문속도가 매우 빠르고 지연이 적다. 일반주문이 원장을 통해 모든 유효성을 체크한다면, DMA 주문은 간소화된 주문 체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헤지펀드, HFT(초단타), 알고리즘 트레이더, 기관투자자가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DMA는 기존에도 운영하고 있던 서비스인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의 ETF 거래대금 M/S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DMA는 빠른 속도를 요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중요하고,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이 관련하여 수혜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의 ETF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4월 1,193억원에서 5월 2,057억원, 6월 3,442억원으로 각각 MoM+72.4%, 67.4% 증가하며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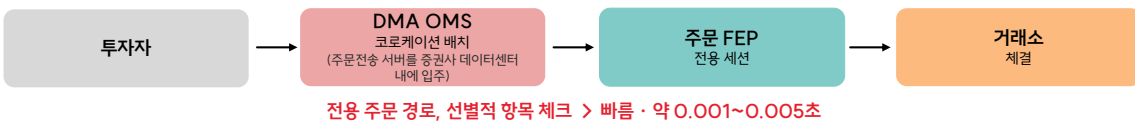
DMA 수수료율은 국내 브로커리지 수수료율(3~4bp)보다 낮은 1bp 수준 정도로 예상되며, 수수료율은 낮지만 절대적인 거래 규모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DMA란?**

**일반주문**



**DMA 주문**



**원장 체크**

- 일반: 전체 항목 체크
- DMA: 선별적, 필수 항목 중심 체크

**빠른 속도 (기술)**

- 코로케이션 + 시세 직접 수신
- 전용 주문 세션 + 원장 우회

**시장 영향**

- HFT의 거래대금 내 비중 약 58% (26년 2월 기준)
- 주로 외국인 · 기관이 활용

**쟁점 · 리스크**

- 개인 대비 최대 50배 속도 차
- 원장 우회 구간 = 사전통제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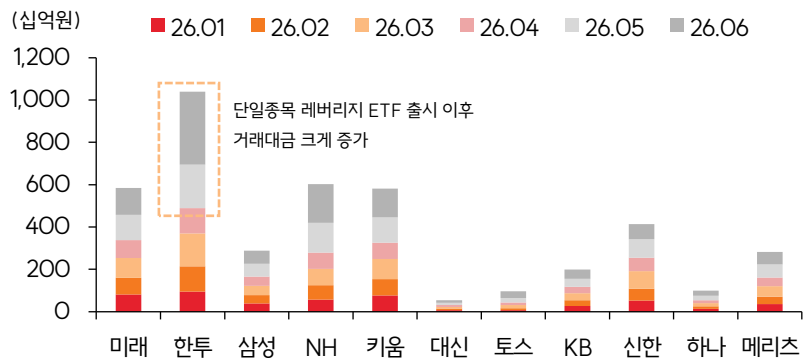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감독원, SK 증권

이처럼 ETF 시장 자체의 성장분 아니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의 DMA 주문을 통하여 브로커리지 점유율 상승,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M/S 증가의 질에 대한 우려** 有  
**다만, 반도체 주도 장세에서**  
**DMA 경쟁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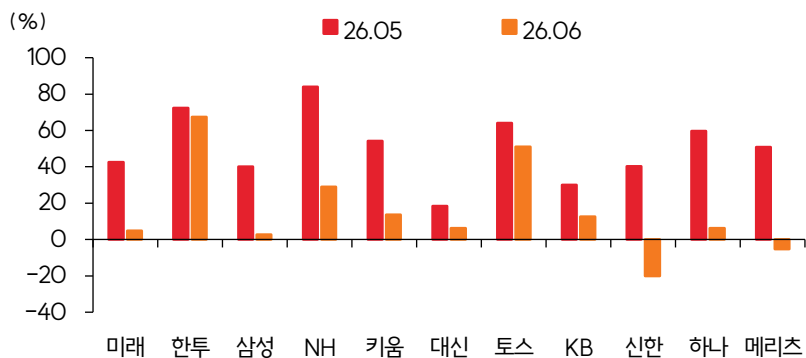
다만, DMA 거래는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 열기가 진정될 경우 거래대금과 점유율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즉, 리테일 고객 기반으로 브로커리지 점유율이 확대되었다기보다는 DMA를 활용한 알고리즘 거래가 집중된 것이 크다는 점에서 M/S 증가의 질에 대한 의문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주 중심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의 거래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한국 투자증권의 DMA 경쟁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포인트라고 판단한다.

**주요 증권사 ETF 거래대금 추이**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주요 증권사 ETF 거래대금 MoM 추이**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4) 우려되는 점은 수급 쏠림으로 거래량은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것**

주도주 장세 영향으로  
거래대금은 증가하는데,  
거래량은 감소

주식시장 강세와 ETF 성장에 힘입어 거래대금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점검할 부분은 최근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주도주 장세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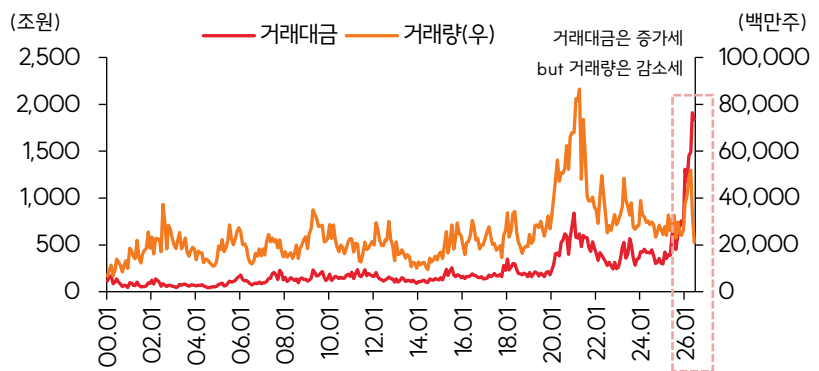
KOSPI 상위 5개 종목의  
거래대금 내 비중이  
60%대에 달함

2026년 현재는 유례없는 반도체 중심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KOSPI 지수 상위 5개 종목(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삼성전자우, 삼성전기)의 비중이 전체 거래대금의 60%대에 달한다. 지수 상승을 이 종목들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증권주의 상대수익률도 부진한 모습이다.

거래대금의 확산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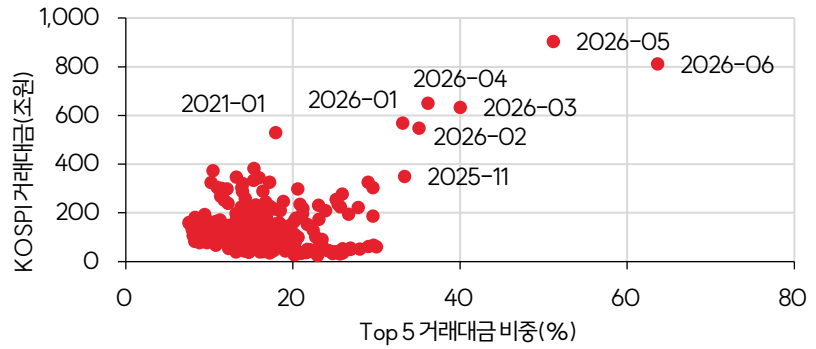
향후에도 KOSPI의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도체 주도주의 강세가 유지되는 동시에, 다른 업종으로 거래대금이 확산되는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주도주의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거래대금 확산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수는 상승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증권주 역시 이러한 거래대금의 확산 여부가 추가 상승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거래대금 및 거래량 추이



자료: Quantwise,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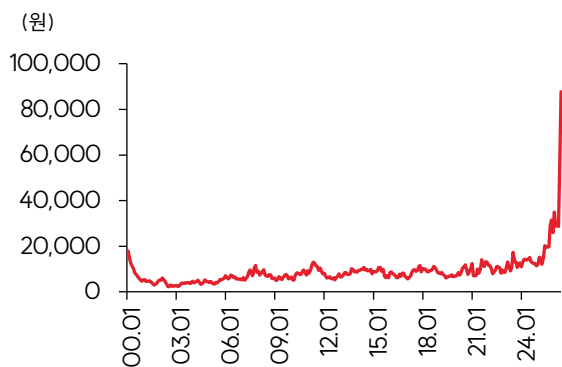
KOSPI 거래대금 및 상위 5개 종목 거래대금 비중 분포(2000~2026)



자료: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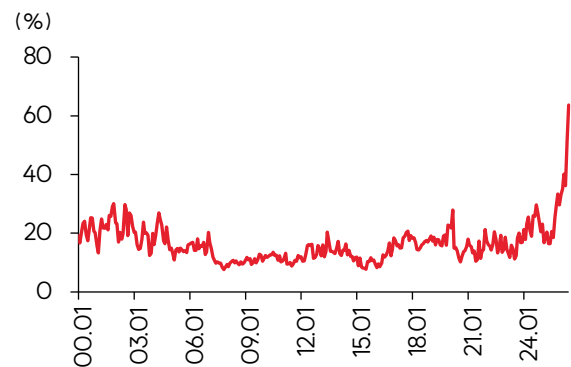
주: KOSPI 상위 5개 종목은 최근 기준으로 설정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삼성전자우, 삼성전기)

평균 거래단가(거래대금/거래량) 추이



자료: Quantwise,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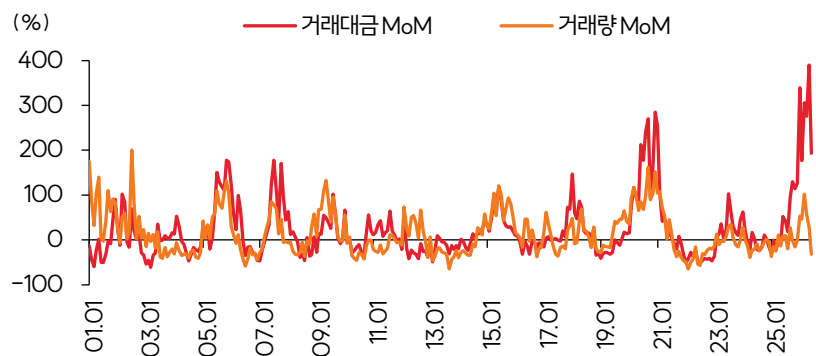
KOSPI 지수 상위 5개 종목 거래대금 비중 추이



자료: Quantwise, SK 증권

주: 상위 5개 종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삼성전자우, 삼성전기

거래대금과 거래량 MoM 추이



자료: Quantwise, SK 증권

**(5) 결국은 거래대금의 확산, 브로커리지 점유율 방어 or 증가가 중요**

**거래대금은 예측 불가  
따라서, 브로커리지 점유율을  
유지 or 확대하는 종목 중심 접근**

앞서 언급했듯이, 증권업종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반도체 주도주 강세가 일정 수준 유지되는 가운데 기타 업종으로 거래대금이 확산되는 것이다. 다만, 거래대금은 예측이 불가능한 천수답 성격이라는 점에서 투자전략 측면에서는 거래대금 증가의 수혜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즉 브로커리지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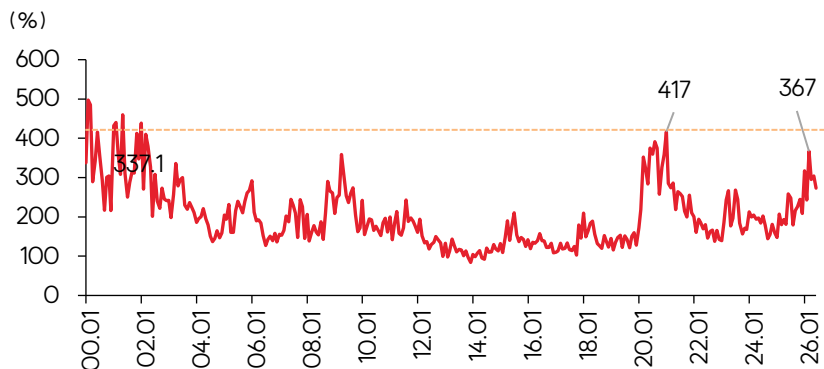
**하반기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도 주목할 필요**

한편, 하반기에는 코스닥 승강제 도입, 동전주 퇴출 등 코스닥 시장의 체질개선 관련 정책들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집중된 거래대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일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회전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관련 정책 효과를 하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브로커리지 점유율 측면에서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최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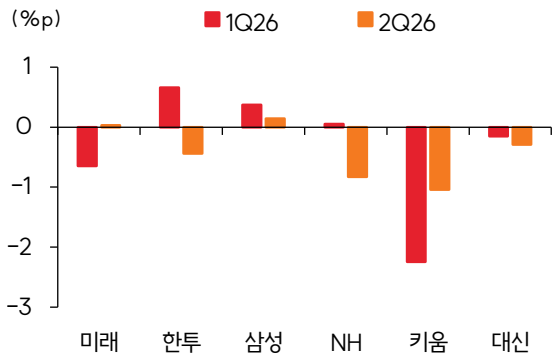
브로커리지 점유율 측면에서는 한국금융지주와 삼성증권을 선호한다. 한국금융지주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힘입어 ETF 시장 점유율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5~6 월 ETF 시장 점유율이 하락함에 따라 KRX+NXT+ETF 기준 전체 시장 점유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정규장에서의 점유율은 가장 잘 방어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회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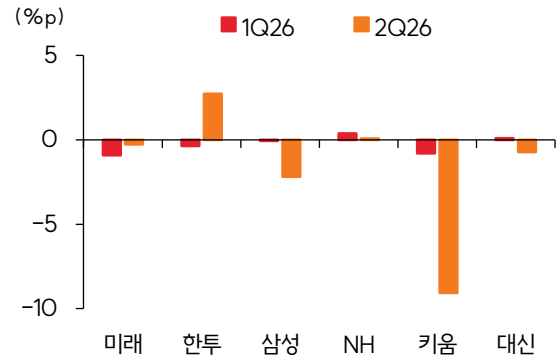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KRX+NXT 점유율 QoQ 변화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KRX+NXT+ETF 점유율 QoQ 변화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코스닥 활성화 정책 로드맵

	주요 내용
승강제	프리미엄, 스탠다드 도입(9월 말 구체화)
상장폐지 기준 강화	코스닥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 (150억원 → 200억원)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상장폐지 요건 적용
기술 특례 강화	바이오에서 AI, 우주, 에너지, 추가 산업군 확대
국민성장펀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성장산업 투자 지원, 올해 30조원 이상 집행
BDC 도입	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 확대

자료: SK 증권

#### 4. 브로커리지는 기본. 차별화 포인트는?

##### 브로커리지는 기본 WM과 운용에서 차별화

연초 증권업종의 주가가 업황 호조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면, 하반기에는 업종 내에서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거래대금 피크아웃 우려가 존재하는만큼 브로커리지 점유율을 유지 or 확대하여 최대한 시장 수혜를 가져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주식시장 강세 자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종목이 상대적으로 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WM 부문과 운용부문의 경쟁력이 차별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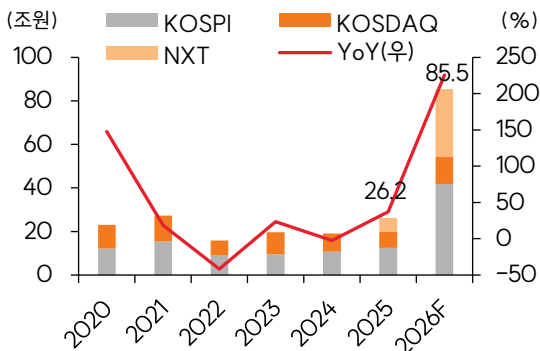
반면, IB 부문은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1)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IPO 시장의 회복이 제한적이고, 2) 높은 금리 부담으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보다 은행 대출을 선호함에 따라 DCM 시장 역시 비우호적인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결국, IB 부문의 실적은 부동산 PF와 인수금융 딜 성과에 따라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1) 브로커리지 성장 동력 여전히 ing 형

#####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부문에서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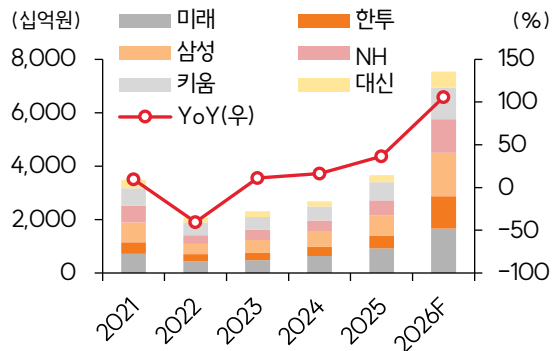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 부문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반기에 시장 변동성은 높겠지만 반도체 섹터 이익 체력에 기반하여 KOSPI 지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90조원대를 기록하며 당사 추정치를 상회함에 따라,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 추정치를 기존 72.5조원에서 85.5조원으로 18.0% 상향 조정한다. 이에 유니버스 증권사의 2026F 브로커리지 수수료손익은 7조 5,460억원(YoY +105.9%)으로 전망한다.

국내 일평균 거래대금(KRX+NXT)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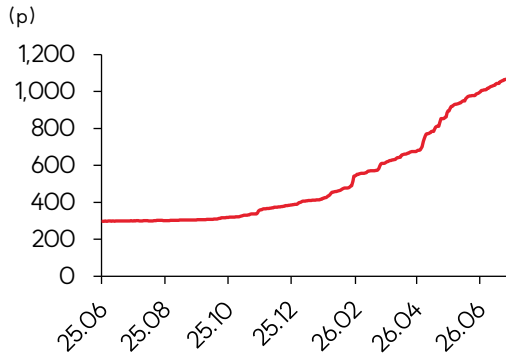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넥스트레이드,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브로커리지 수수료손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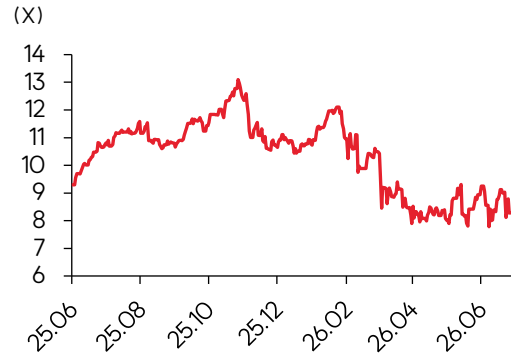
자료: 각 사, SK 증권

KOSPI 지수 12MF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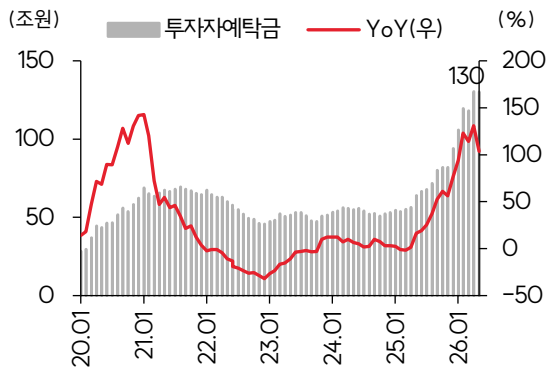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K 증권

KOSPI 지수 12MF P/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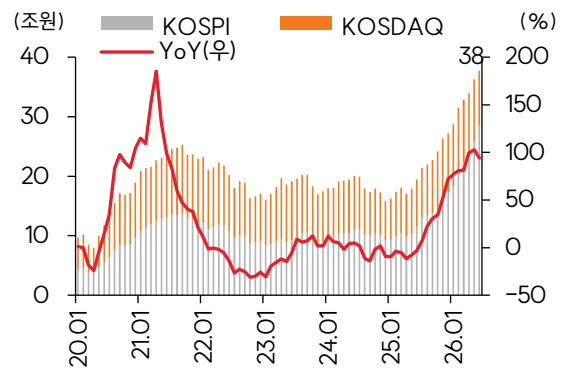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K 증권

투자자예탁금(월 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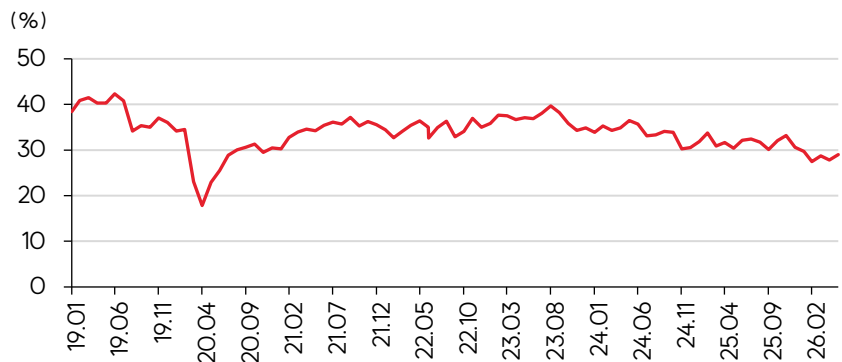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SK 증권

신용거래용자잔고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SK 증권

신용거래용자잔고/투자자예탁금 비중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SK 증권

(2) WM: 목표전환형 펀드/랩어카운트 빠른 회전을 통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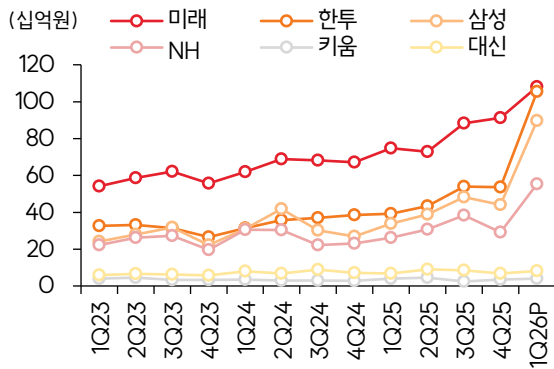
목표전환형으로  
WM에서도 '회전율' 기대

1 분기 실적에서 보이듯이,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에 더하여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역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이는 증시 호조에 따라 목표전환형 펀드 및 랩어카운트 판매 증가 영향이다. 주식시장 상승세가 가팔랐던 만큼 거래대금 측면에서의 회전율뿐 아니라 목표전환형 상품에서 목표수익률을 단기간에 달성한 이후 청산, 재가입하는 과정이 빨라지며 WM에서도 회전율의 개념이 눈에 띄었던 분기였다.

주식시장 강세 수혜는  
목표전환형 상품  
판매 증가로 나타남  
→ 삼성, 한투, NH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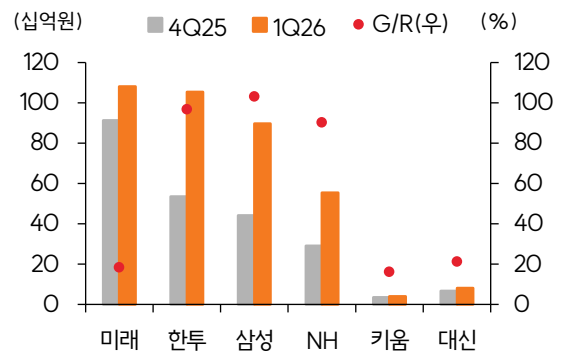
하반기에도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목표전환형 펀드 및 랩어카운트에서 강점이 있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 투자증권이 우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1 분기에도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성장률이 이 세 종목에서 특히 높았다. 물론, 절대적인 자산관리 수수료수익은 퇴직연금 사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크나, 이번 증시 호황에 따른 수혜는 펀드 및 랩어카운트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기에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 투자증권의 매력도가 더 높은 국면이라고 판단한다.

유니버스 증권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추이



자료: 각 사,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G/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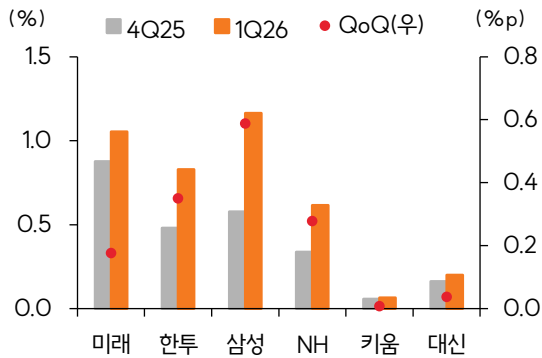
자료: 각 사, SK 증권

**BK+WM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선호**

이처럼 하반기에도 주식시장 강세에 힘입어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 수수료수익의 ROE 기여도가 높은 종목이 매력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ROE 기여도는 삼성증권이 가장 높고, 키움, 미래, NH, 대신, 한투 순서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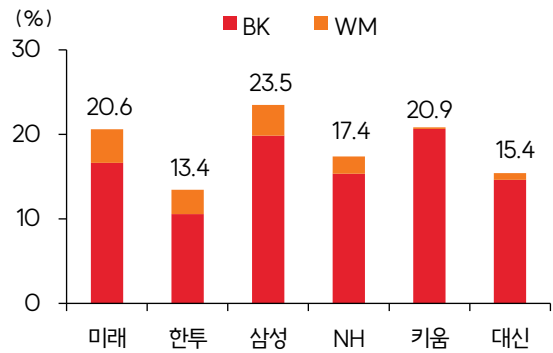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자기자본이 크기 때문에 BK+WM 의 ROE 기여도가 다소 왜곡되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올해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 수수료수익의 성장세가 가장 가파를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BK 와 WM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금융지주와 삼성증권을 최선호주로 제시한다.

유니버스 증권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ROE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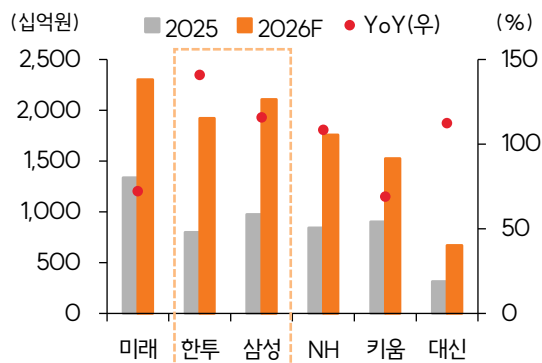
자료: 각 사, SK 증권

2026F BK+WM 수수료수익 ROE 기여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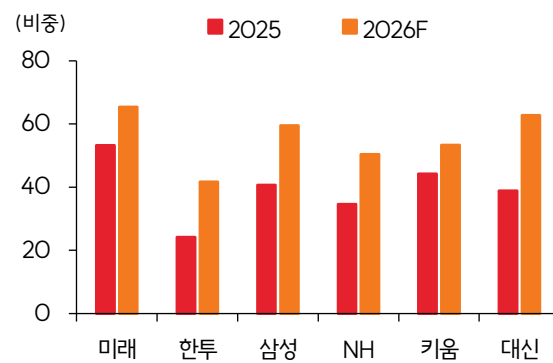
자료: 각 사,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BK+WM 수수료수익



자료: 각 사,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BK+WM 수수료수익 운영업수익 내 비중



자료: 각 사,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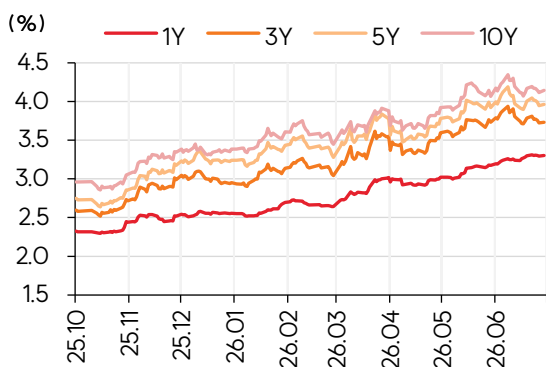
**하반기에도  
채권매매평가손익보다  
유가증권 매매평가손익 기여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

**(3) 운용은 채권부문 부진을 유가증권에서 얼마나 상쇄하느냐가 관건**

증권업은 특성상 FVPL 채권 비중이 높은만큼 시장금리 상승 시 채권매매평가손실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당사 자산전략팀은 올해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금리의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에도 채권운용 환경은 다소 비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식시장 강세에 힘입어 주식 및 수익증권 등의 유가증권 매매/평가이익이 얼마나 채권부문의 부진을 상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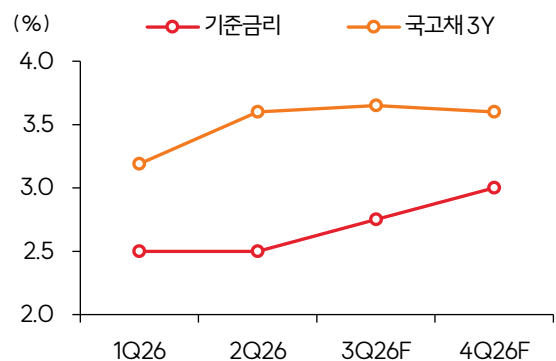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스페이스 X IPO 에 따른 평가이익이 예상되므로 채권운용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운용손익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금융지주는 증권 ELS 부문 성과, 발행어음 비즈니스 뿐 아니라 운용 자회사의 주식운용 성과가 기여하며 전년도 평가이익으로 인한 기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손익이 전년 대비 증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움증권은 주식 PI 및 운용 자회사의 유가증권 평가이익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외 채권 포트폴리오가 대부분인 삼성증권과 NH 투자증권을 비교 시, 보다 더 보수적인 채권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NH 투자증권의 방어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Quantwise,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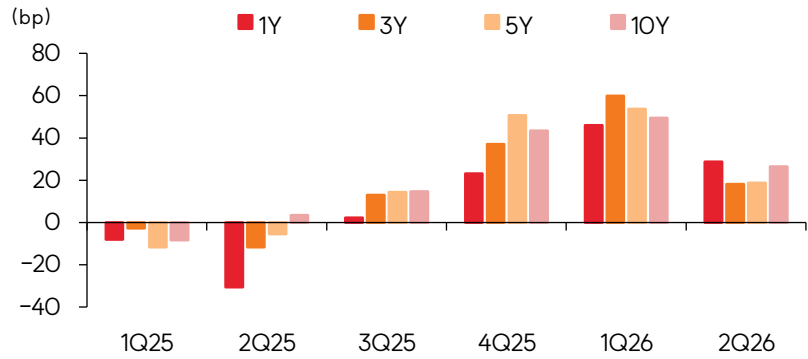
기준금리 및 국고채 3년물 금리 전망



자료: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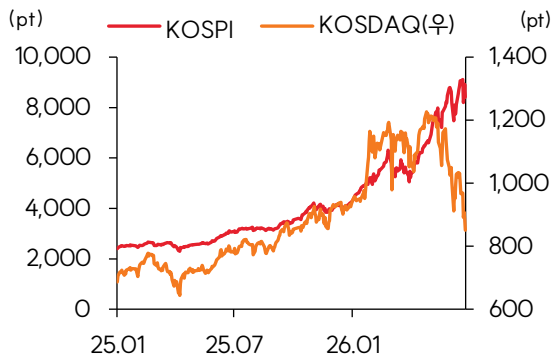
주: 당사 자산전략팀 전망치 기준

국고채 금리 QoQ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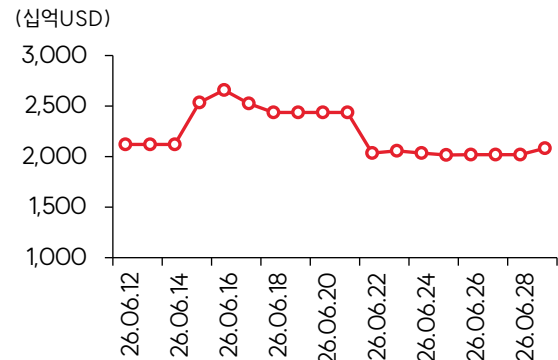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KOSPI 및 KOSDAQ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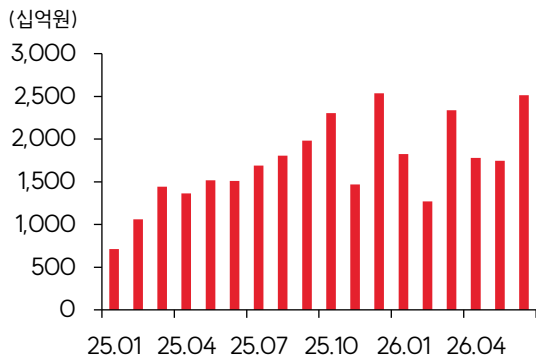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스페이스 X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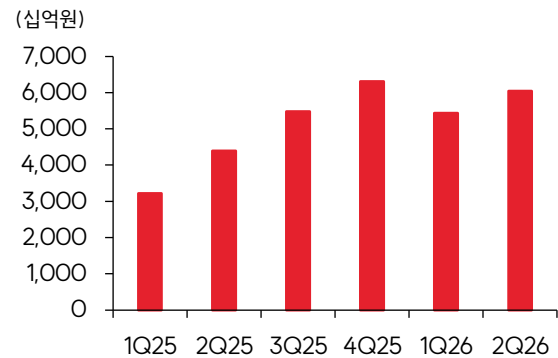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K 증권

ELS 조기상환 월별 추이



자료: 한국에탁결제원, SK 증권

ELS 조기상환 분기별 추이



자료: 한국에탁결제원, SK 증권

**(4) 거래대금 외에 북비즈니스도 중요. 규모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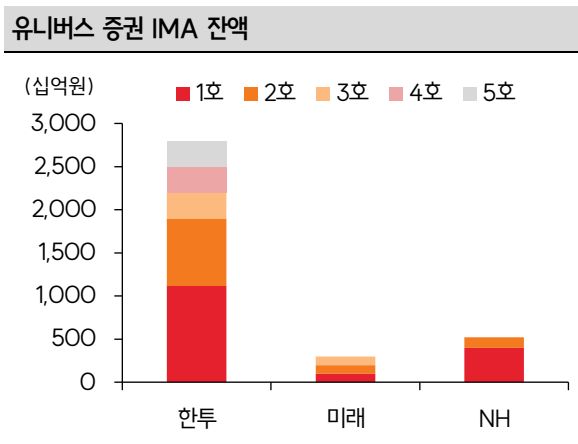
올해 3 월 NH 투자증권이 IMA 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IMA 사업자는 총 3 곳이 되었으며, 발행어음 사업자는 7 곳으로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인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행어음/IMA 사업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 하에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방향성과 일치하고, 증권업 입장에서는 조달원을 확대함으로써 레버리지를 높이고 기업금융 중심의 IB 연계 투자를 통해 이익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거래대금은 천수답 성격  
따라서, 안정적인  
이익 기여 측면에서  
북비즈니스 기여도도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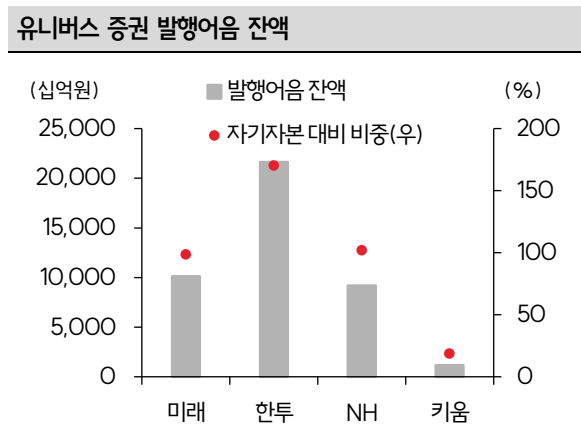
거래대금이 증권주의 투자심리를 견인하지만, 북 비즈니스도 중요하다. 1) 레버리지 확대를 통해 운용손익 및 자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 증시 및 거래대금은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하반기에 거래대금 증가세가 둔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거래대금 레벨과 상관없이 꾸준히 이익 기여를 해 줄 수 있는 북비즈니스 기여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행어음의 경우, 2026 년 조달 규모와 각 회사별 마진을 고려했을 때, 미래에셋증권은 1,000 억원, 한국금융지주 4,400 억원, NH 투자증권 1,500 억원, 키움증권 250 억원의 이익 기여를 할 것으로 추정한다.

IMA 의 경우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IMA 1 호 상품의 설정 이후 기간(12/26~3/31) 수익률이 0.35%를 기록했다고 알려졌으며, 대략적으로 연환산 시 1.4%이다. 한국투자증권의 1 호 상품 수익률은 1.04%, 연환산 시 3.92%로 알려졌다. 만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볼 단계이지만, 한국투자증권은 기준수익률 4.0%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료: 각 사, SK 증권



자료: 각 사, SK 증권

## 5. 투자전략 및 결론

**상반기 증권업종은  
KOSPI 지수 대비  
56.5%p 언더퍼폼**

현재 일평균 거래대금 100 조원대, ETF 까지 포함 시 140 조원대를 기록하며 유례없는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KRX 증권지수는 올해 YTD 42.7% 상승하며 KOSPI 지수 대비 56.5%p 언더퍼폼하였다. 실적 호조에도 증권주가 크게 소외된 배경은 반도체 중심의 수급 쏠림과 거래대금 피크아웃 우려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우려하듯이, 일평균 거래대금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 분기 QoQ 증가율이 80.6%(ETF 포함 시 86.3%)로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증가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100 조원을 훌쩍 상회하며 높은 수준이기에 증권업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5 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ETF 일평균 거래대금이 급증하며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거래대금 확산 및  
회전을 제고가 중요  
관련 정책에 주목할 필요**

결국 증권주의 반등 여부는 거래대금의 절대 수준뿐 아니라 거래대금의 확산 및 회전을 제고 여부가 좌우할 것으로 판단한다. 회전을 및 거래대금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연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통합계좌의 투자 가능 대상을 국내 ETF 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코스닥 승강제 도입, 동전주 퇴출 등 코스닥 시장의 체질개선 정책도 예정되어 있다. 이는 현재 코스피 대형주에 집중된 거래대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일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회전을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정책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주식시장 강세 수혜  
극대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보유한 종목 위주 접근 추천**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견조하고 회전율도 제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따라서, 투자전략으로는 브로커리지 부문은 기초 체력으로 가져가면서 유례없는 주식시장 강세로부터 최대한의 수혜가 기대되는 포트폴리오(WM, 운용 등)를 보유한 종목 위주로 접근을 추천한다. 최선호주로 한국금융지주와 삼성증권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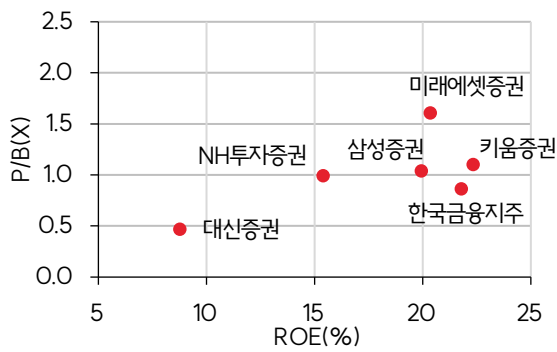
Top Picks

: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 한국금융지주: 기존의 WM 경쟁력에 더해 ETF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올해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 부문의 YoY 성장률이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운용 부문에서 주식시장 강세로 자회사의 유가증권 평가이익 기여가 예상되며, 주식시장과 별개로도 발행어음 및 IMA 북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 기여가 가능하다. 2026F ROE 21.8% 전망하며, P/B는 0.86 배에 불과하여 밸류에이션 매력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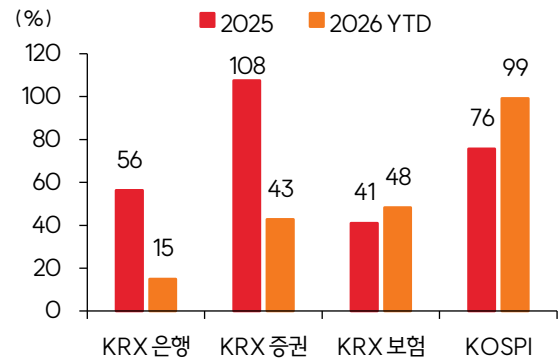
- 삼성증권: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 부문의 기여도가 유니버스 증권 내에서 가장 높은 종목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지배주주순이익이 전년 대비 7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유니버스 증권 내에서 높은 이익 성장세를 예상한다. 2026F ROE 19.9%로 예상하며, 12MF P/B는 1.0 배로 낮은 수준이다.

유니버스 증권 2026F ROE - P/B 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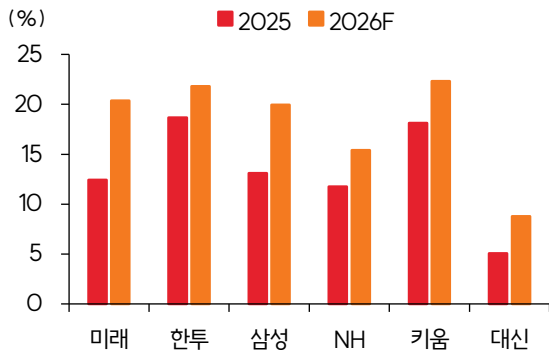
자료: 각 사, SK 증권

KRX 은행, 증권, 보험 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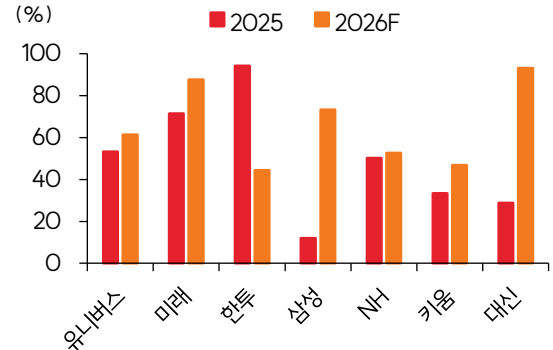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ROE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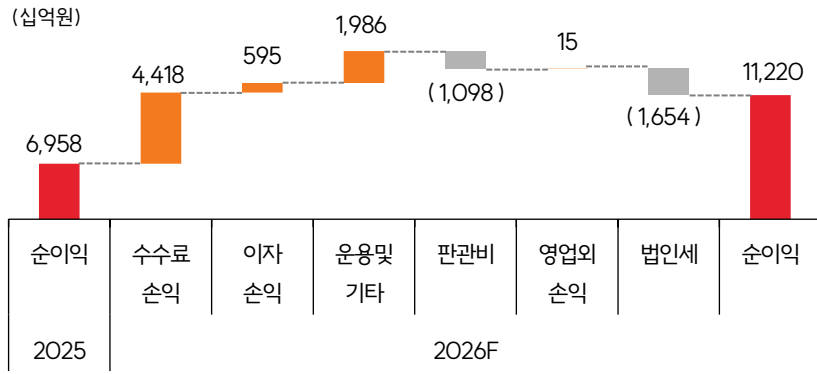
자료: 각 사,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지배주주순이익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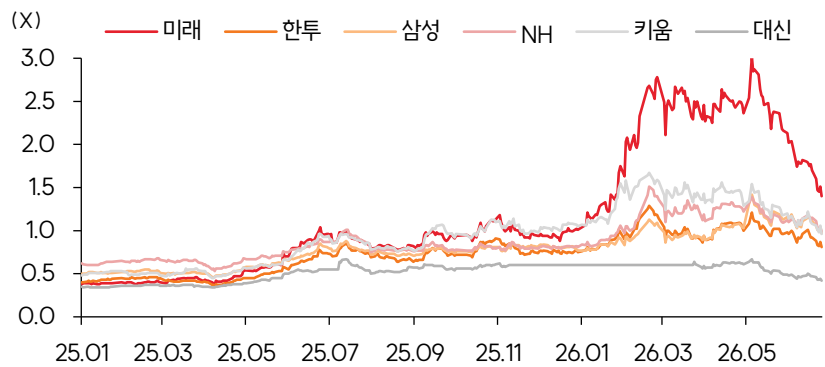
자료: 각 사,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2026F 연결 순이익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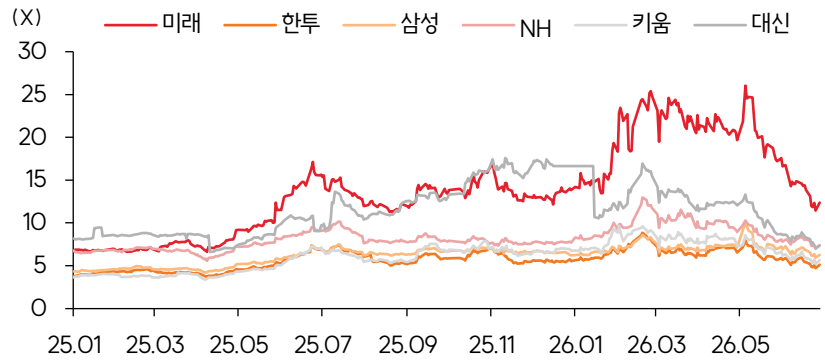
자료: 각사,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12MF P/B 추이



자료: Quantwise,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12MF P/E 추이



자료: Quantwise, SK 증권

---

---

# COMPANY ANALYSIS

---

---



# 한국금융지주 (071050/KS)

## ETF 타고 브로커리지 왕좌를 노린다

증권. 장영임 / yijang123@sks.co.kr / 02-3773-8424

**Signal:** 6월 KRX+NXT+ETF 합산 점유율이 1위사와 근접  
**Key:**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효과 영향. 점유율 판도 변화 예상  
**Step:** 2026F ROE 21.8%에도 12MF P/B 0.8 배에 불과. 매수 추천

### 매수(유지)

목표주가: 410,000 원(유지)  
 현재주가: 221,000 원  
 상승여력: 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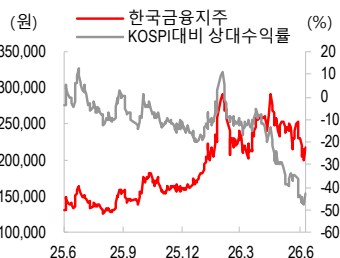
### STOCK DATA

주가(26/06/30)	221,000 원
KOSPI	8,476.48 pt
52주 최고가	292,500 원
60일 평균 거래대금	74 십억원

### COMPANY DATA

발행주식수	5,573 만주
시가총액	12,315 십억원
주요주주	
김남규(외 1)	21.30%
국민연금공단	13.13%
외국인 지분율	35.38%

### 주가 및 상대수익률



### 영업실적 및 투자지표

구분	단위	2025	2026E	2027E
순영업수익	십억원	4,009	5,494	4,957
영업이익	십억원	2,345	3,606	2,905
순이익(지배주주)	십억원	2,020	2,918	2,375
EPS	원	34,598	49,962	40,662
BPS	원	205,667	252,841	282,866
PER	배	4.7	4.6	5.6
PBR	배	0.8	0.9	0.8
ROE	%	18.7	21.8	15.2
배당성향	%	25.1	19.2	26.0

### ETF 까지 합산 시 브로커리지 점유율 1등에 근접

ETF 일평균 거래대금이 급성장함에 따라 브로커리지 점유율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26년 6월 기준 한국투자증권의 브로커리지(KRX+NXT+ETF) 점유율은 13.6%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2.8%p 크게 상승하였다. 이로써 브로커리지 점유율에 있어 오랫동안 1등을 지켜오던 경쟁사(14.8%)와의 점유율 격차가 1.3%p 로 매우 좁혀졌다. 이는 기존 정규장(KRX+NXT) 기준 점유율은 1위사와 보통 7~8%p 크게 차이났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 ETF 점유율 증가 배경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feat. DMA)

6월 한국투자증권의 ETF 점유율이 크게 상승한 데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가 기여하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DMA 서비스를 통해 주문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의 ETF 거래대금이 6월 MoM +67.4% 증가하며 유니버스 증권 내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지금과 같이 반도체주 중심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국면에서 개인 고객을 넘어 외국인과 기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수급을 흡수할 수 있게 하는 DMA 경쟁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성장하는 ETF 시장에서 점유율 우위를 점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10,000 원, 최선호주 유지

기존 투자포인트인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경상이익 체력과 북 비즈니스에서의 경쟁력에 더해, 이제는 브로커리지 점유율에서 업계 선두권으로의 도약 가능성이 새로운 투자포인트이다. 반면에, 밸류에이션은 경쟁사 대비 낮다. 현재 유니버스 증권의 12MF P/B 평균이 1 배인데 반해, 동사는 20% 할인된 0.8 배 수준에 그친다. 2026F ROE 21.8%만 고려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증권업에 대해 거래대금 피크아웃 우려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ETF 성장에 따른 시장 점유율 변화 가능성이 아직 동사의 밸류에이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증권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한다.

또한, 최근 반도체 주도 장세에서 증권업이 소외됨에 따라 주가 괴리율은 확대되었으나, 증권업황 및 동사의 경쟁력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역시 410,000 원으로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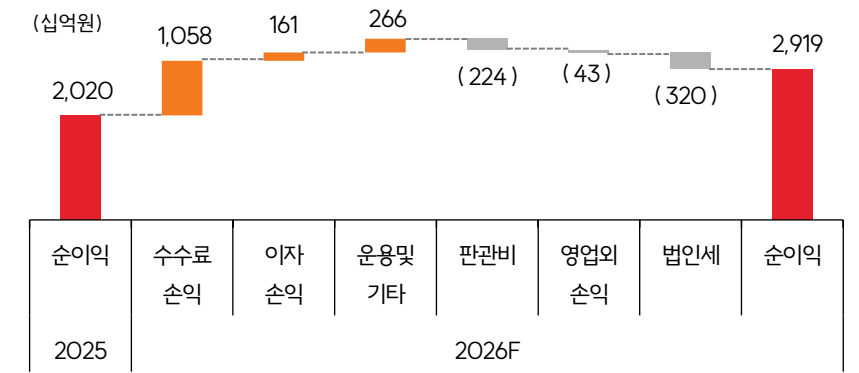
## Valuation

한국금융지주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410,000 원을 유지한다. 지속가능한 ROE 16.8%(2026F~2028F ROE 평균), COE 11.8%를 바탕으로 Target P/B 1.52 배를 산출하였다. 이를 12MF BPS 269,473 원에 적용하여 목표주가 410,000 원을 도출하였다.

구분	내용
Sustainable ROE(%)	16.8
자기자본비용(COE)(%)	11.8
영구성장률(g)(%)	2.0
Target P/B(배)	1.52
12M Forward BPS(원)	269,473
적정 주가(원)	410,047
목표 주가(원)	410,000
전일 증가(원)	221,000
상승여력(%)	85.5%
<b>투자 의견</b>	<b>BUY</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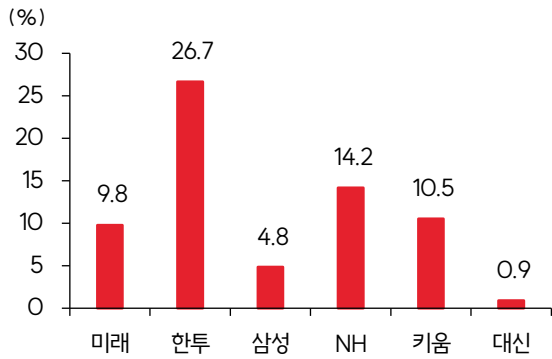
자료: SK 증권

## 한국금융지주 2026F 연결 순이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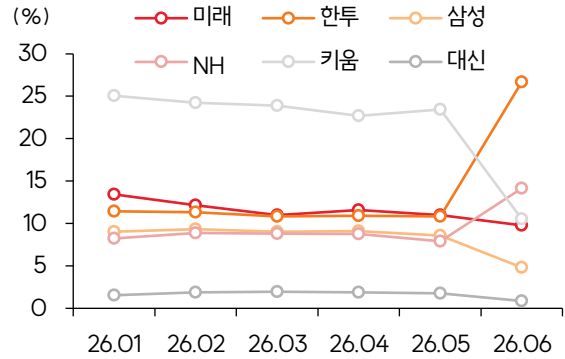
자료: 한국금융지주,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ETF 거래대금 점유율(2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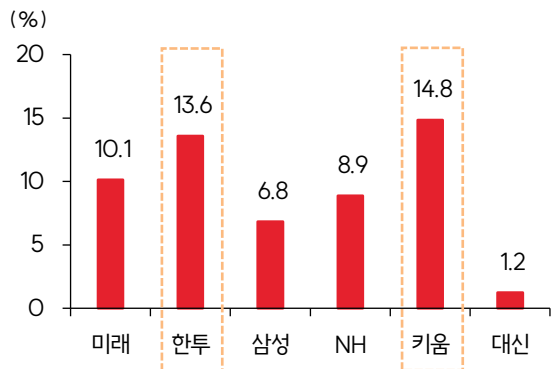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ETF 거래대금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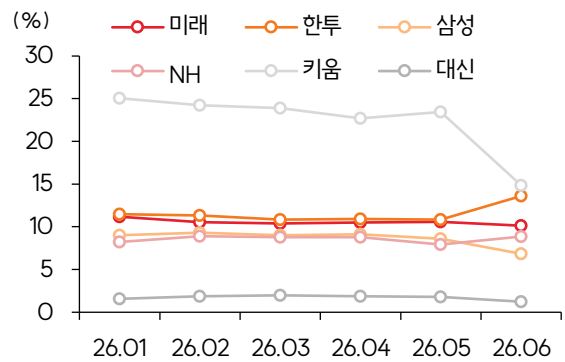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KRX+NXT+ETF 점유율(2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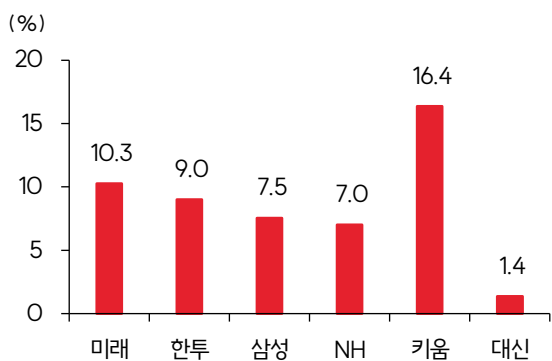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KRX+NXT+ETF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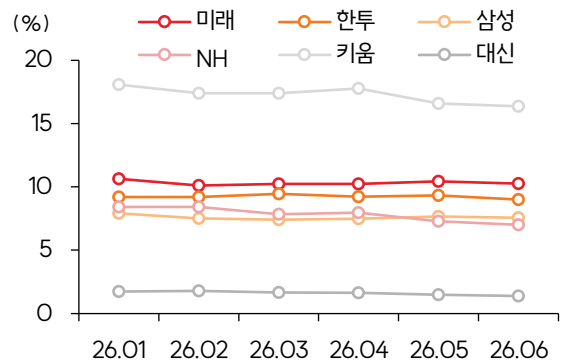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KRX+NXT 점유율 (2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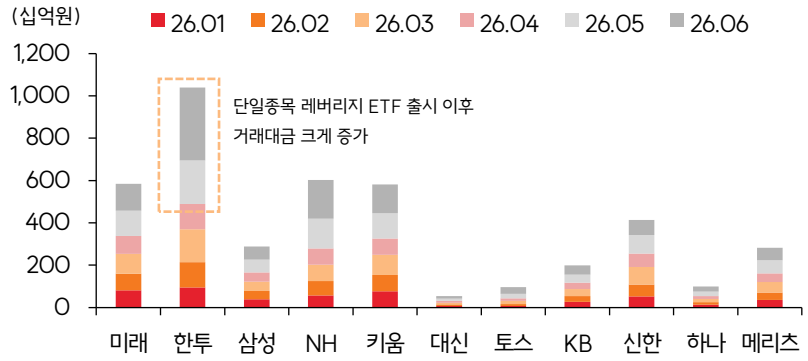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KRX+NXT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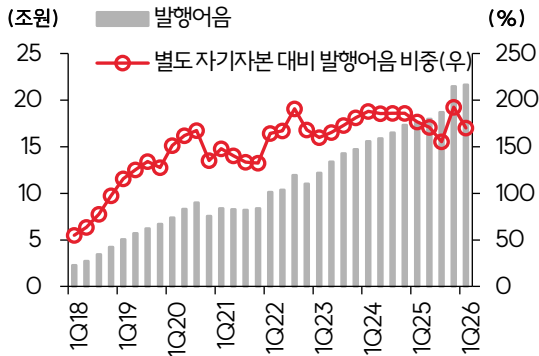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주요 증권사 ETF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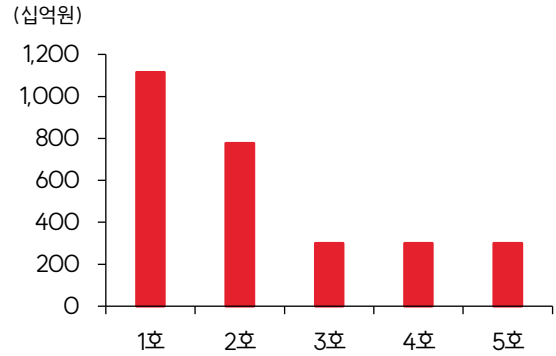
자료: Check Expert+, SK 증권

한국투자증권 자기자본 대비 발행어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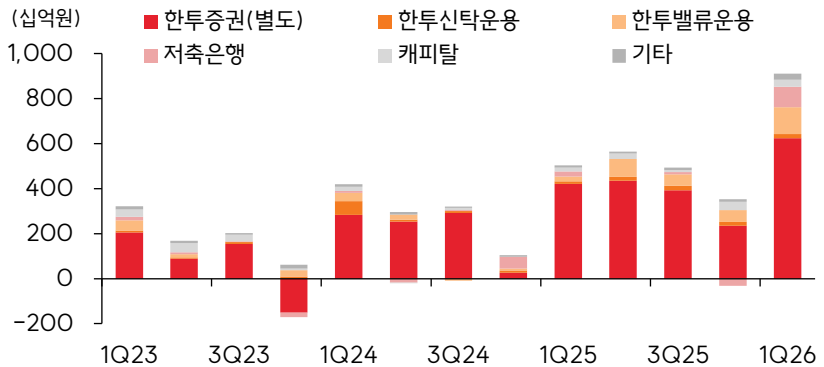
자료: 한국금융지주, SK 증권

한국투자증권 IMA 조달 금액



자료: 한국금융지주, SK 증권

주요 자회사 실적 추이



자료: 한국금융지주, SK 증권

손익계산서(한국투자증권 별도)

12월 결산(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순영업수익	2,540	3,308	4,611	4,120	4,305
수수료손익	976	1,260	2,242	1,829	1,884
수수료수익	1,149	1,490	2,725	2,208	2,265
위탁매매	436	609	1,512	1,074	1,082
자산관리	143	190	432	348	378
IB및기타	570	691	781	786	806
수수료비용	173	231	483	379	382
이자손익	530	799	960	1,062	1,201
운용손익	865	1,361	1,339	1,190	1,184
기타손익	168	-112	70	40	36
판매및관리비	1,000	1,189	1,363	1,544	1,700
영업이익	1,540	2,119	3,248	2,576	2,606
영업외손익	-75	103	69	19	34
세전이익	1,464	2,223	3,318	2,596	2,640
법인세비용	269	487	917	717	729
당기순이익	1,195	1,735	2,401	1,878	1,910

손익계산서(한국금융지주 연결)

12월 결산(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순영업수익	2,635	4,009	5,494	4,957	5,101
수수료손익	1,225	1,562	2,620	2,201	2,255
이자손익	1,255	1,591	1,752	1,859	1,999
운용손익	235	1,449	1,467	1,336	1,301
기타손익	-80	-594	-346	-440	-454
판매및관리비	1,435	1,663	1,888	2,051	2,184
영업이익	1,200	2,345	3,606	2,905	2,917
영업외손익	199	378	336	268	287
세전이익	1,399	2,724	3,942	3,173	3,203
법인세비용	353	699	1,019	793	801
당기순이익	1,046	2,024	2,923	2,380	2,403
지배순이익	1,040	2,020	2,918	2,375	2,397

전년 대비 성장성 (한국금융지주 연결, %)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순영업수익	32.5	52.1	37.1	-9.8	2.9
수수료손익	17.8	27.5	67.7	-16.0	2.5
이자손익	28.0	26.8	10.1	6.1	7.5
운용손익	-61.0	516.5	1.2	-8.9	-2.6
기타손익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판매및관리비	22.8	15.9	13.5	8.7	6.5
영업이익	46.2	95.5	53.8	-19.4	0.4
당기순이익	47.7	93.6	44.4	-18.6	1.0
지배순이익	47.1	94.3	44.4	-18.6	1.0
자산총계	13.9	24.7	10.7	2.0	4.9
부채총계	13.8	24.7	9.5	0.9	4.3
자본총계	15.3	24.3	22.8	11.8	10.6
지배주주지분	15.3	24.4	22.9	11.9	10.7

자료: 한국금융지주, SK증권 추정

재무상태표(한국금융지주 연결)

12월 결산(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자산총계	109,220	136,162	150,696	153,715	161,319
현금 및 예치금	11,178	13,794	16,228	15,568	16,358
FVPL 금융자산	64,823	82,186	88,404	90,473	96,169
FVOCI 금융자산	2,362	3,037	4,934	4,999	5,292
AC 금융자산	25,090	30,400	30,734	31,146	31,667
종속관계기업투자자산	4,831	4,565	5,889	6,641	7,089
유형자산	483	527	521	523	527
무형자산	165	263	257	260	264
기타자산	288	275	202	364	278
부채총계	99,486	124,062	135,837	137,102	142,938
예수부채	16,139	19,809	25,451	22,695	24,543
차입부채	59,733	72,824	74,705	78,047	83,593
FVPL 금융부채	16,702	20,674	21,945	23,117	24,066
매도파생결합증권	10,173	14,090	15,777	16,832	17,884
기타부채	6,911	9,696	13,736	13,243	10,736
자본총계	9,735	12,099	14,860	16,613	18,381
지배주주지분	9,651	12,010	14,765	16,518	18,286
자본금	308	308	308	308	308
자본잉여금	608	184	184	184	184
신종자본증권	0	498	704	704	704
이익잉여금	8,036	10,283	12,687	14,501	16,279
기타자본	699	738	883	823	812
비지배주주지분	84	89	94	95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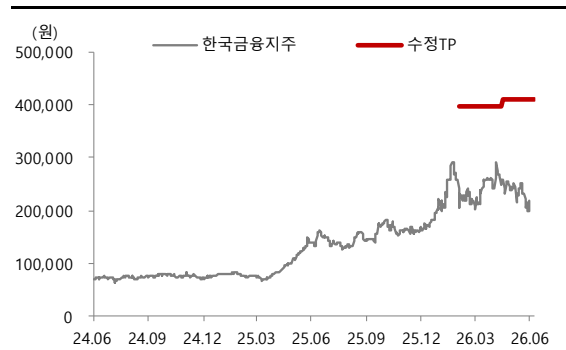
순영업수익 구성(한국투자증권 별도, %)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수수료손익	38.4%	38.1%	48.6%	44.4%	43.8%
Brokerage	13.6%	14.8%	26.1%	20.8%	20.0%
WM	4.9%	5.0%	8.9%	8.5%	9.0%
IB및기타	20.0%	18.2%	14.1%	16.0%	15.8%
이자손익	20.9%	24.1%	20.8%	25.8%	27.9%
운용손익	34.1%	41.1%	29.0%	28.9%	27.5%
기타손익	6.6%	-3.4%	1.5%	1.0%	0.8%

주요 지표(연결)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수익성(%)					
ROE(지배)	11.5	18.7	21.8	15.2	13.8
ROA(지배)	1.0	1.6	2.0	1.6	1.5
판관비용률	54.5	41.5	34.4	41.4	42.8
투자지표(원)					
EPS(지배)	17,805	34,598	49,962	40,662	41,055
BPS(지배)	165,262	205,667	252,841	282,866	313,138
DPS(보통주)	3,980	8,690	9,600	10,600	10,900
Valuation					
P/E(x)	4.0	4.7	4.6	5.6	5.6
P/B(x)	0.4	0.8	0.9	0.8	0.7
배당성향(%)	22.3	25.1	19.2	26.0	26.5
배당수익률(보통주, %)	5.6	5.4	4.2	4.6	4.8

일시	투자의견	목표주가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 추가대비
2026.05.15	매수	410,000원	6개월		
2026.03.03	매수	399,000원	6개월	-40.22%	-26.94%
2025.08.07	매수	176,000원	6개월	-3.18%	66.19%
2025.05.15	매수	115,000원	6개월	13.75%	42.26%
2025.02.14	매수	100,000원	6개월	-23.45%	-10.60%
2024.09.24	매수	91,000원	6개월	-16.71%	-11.21%



COMPLIANCE NOTICE

작성자(장영민)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6년 07월 01일 기준)	매수	93.55%	중립	6.45%	매도	0.00%
---------------------------------------	----	--------	----	-------	----	-------